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6월 20일(음력 5월 6일) 수요일 (주간) 제 633 호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판' "한자권서 지속적 포교 기여"

국제자문위원회 유네스코에 등재 권고키로
2001년 '직지'에 이어 불교기록으론 두번째

합천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諸經板)'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된다.

제8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6월 11~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회의를 열고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 의궤(儀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등재는 고려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된 지 1000년이 되는 2011년을 앞두고 국내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 결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번에 등재된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판을 포함한 8만7000여 장의 불교 경판을 일컫는다.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해인사대장경판(국보 제32호)은 불교 경전이 한자로 새겨져 있는 세계 유일의 목판본으로, 수천만 개의 글자 하나하나가 오 · 탈자 없이 고르고 정밀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해인사대장경판 이외에도 고려시대 새긴 목판 2835매가 있다. 이 '고려각판'은 모두 54종 2835판으로, 이 중 28종 2725판이 국보 제206호로, 26종 110판이 보물 제734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경판'은 해인사가 소장한 경판 중 팔만대장경판을 제외한 불교경전, 역사, 고승문집, 판화 등을 새긴 경판을 지칭한다. 팔만대장경판이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겨진 것과 달리 제경판은 지방관청이나 절에서 새긴 것이다.

국제자문위원회는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한자권에서 불교가 지속적으로 포교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존상태 및 향후 보존계획=국제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 따르면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처음 제작됐을 때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인쇄가 가능할 정도로 보관 상태가 훌륭하다. 또한 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정부 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으며 해인사도 자체적으로 전문 관리기관을 두고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 때 시행된 부적절한 보수로 인해 경판 손잡이 부분의 철제가 부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복원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라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은 국제적 보존 ·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해인사 장경판전=대장경판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은 15세기 건축물로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다.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흔히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등재된 것은 대장경판 보관시설인 장경판전이다. ㅁ자 형태의 장경판전은 앞면 15칸, 옆면 2칸 크기의 두 건물(수다라장과 법보전)과 양쪽 끝에서 마주보고 세워진 건물(동 · 서 사간전)로 구성돼 있다.

해인사는 대장경판 보관시설(장경판전)과 보관물(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모두가 유네스코 등록 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적인 유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고려대장경이란?=고려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불경(佛經)과 장소(章疏)를 집대성해 인간(印刊)한 불경을 말한다. 1011~1087년 조성된 초조(初雕)대장경과 1090년 전후에 편찬된 교장(敎藏), 1236~1251년 조성된 재조(再雕)대장경을 통칭한다. 재조대장경의 경판 수가 8만여 점이라고 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초조대장경과 교장은 전란(戰亂)으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일본과 국내에 초조대장경 3000여 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소장 사간판의 인경(印經) / 현대불교 자료 사진

Tip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 교육 · 과학 · 문화 기구)가 1992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인류의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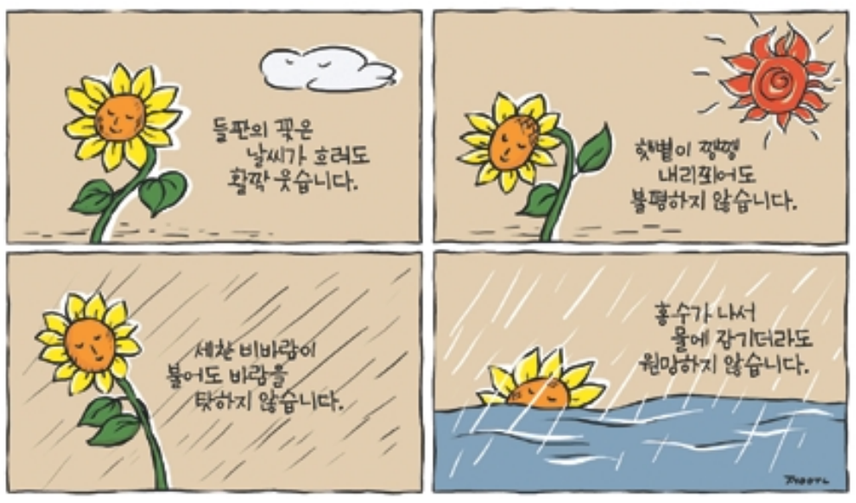
현재 전 세계 59개국 120건이 등록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2001년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일기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선 무 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81-6521 방배 02)599-5554
송파 02)3431-48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655
· 안산 031)475-2600 청주 043)285-1732
· 대구 053)525-0718 포항 054)275-6069
·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 부산 :
정원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 U.S.A L.A 213-487-5377
· Canada Toronto 941-656-9642
· Austria Salzburg 06-215-5394
·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I Love Buddha / 받아들이기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외국인 수행자' 지원 나선다

조계종 교육원 연석회의 발족

외국인 수행자들을 지원 · 관리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발족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외국인 스님 수행사찰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관계자와 외국인 스님 수행사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연석회의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행자들을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종무회의를 통한 령 제정이나 중앙종회를 통한 종법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호국불교' 대토론회

대불총, 27일 프레스센터서

호국불교의 의미와 역사, 우리시대의 적용 등을 조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불교도의 자세'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호국불교와 민중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제로 기조 강연하며 김덕수(예비역 군법사)씨와 정천구 교수(영산대) 김영국(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광식 교수(부천대)와 윤세원 교수(인천전문대)가 참여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독자위 토론 중계▶19면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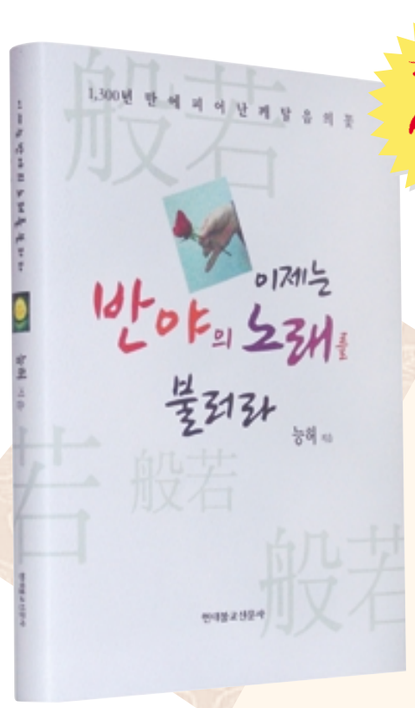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 /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최제의 신간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國法'에 묶인 '佛法'…개정·폐지 마땅

불교 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 개최

"정부는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이중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개발제한구역 유지 · 관리, 타시설과 형평성 등 측면에서 전통사찰 요구사항 전면수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이영근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불교 규제 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가 공동주최한 공청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본사주지스님 15명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정치권에서도 이해봉 국회 정각회 회장과 윤원호 열린우리당 이타회 회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장영달 열린우리당 대표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교 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 장면.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전통문화공간 규제 위헌소지

1주제인 '전통문화 계승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돼 있고 관련법제에 의해 제한을 받게 돼 조항들 간의 체계 정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러한 법의 구조는 입법목적에 배치돼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관련조항과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개정도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법에 아예 특례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전통사찰의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이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형남 변호사는 "전통문화를 창조해나가는 종교적 유기체가 자유롭게 활동해나가야 할 공간을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으로 묶는다는 것은 문화국가원리나 종교의 자유에 비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통사찰을 현재 대지화 돼 있는 부분과 그 밖에 지역을 나눠, 대지화 돼 있는 지역에서는 자율적인 통제하에서 건축불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역에서는 전통사찰이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국가법령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규제 풀어라" "어렵다" 공방

공청회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진행된 주제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과 과제.'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를 개정해 전통사찰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동법 22조(부담금의 감면)을 개정해 전통사찰의 개발훼손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법 시행령 별표3을 개정해 전통사찰 증축 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 범위)을 개정해 전통사찰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영근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신 · 증축 허용 요구에 대해 "전통사찰 외 일반사찰, 교회 등 2600여개의 종교시설이 있어 전통사찰에 한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영근 기획관은 △소규모 사찰의 최소증축규모를 일부 확대하고 △현재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증축면적을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장상 면적으로 인정해 추가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전통사찰 진입로 확보 요구에 대해서도 "전통사찰은 산중에 위치해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훼손면적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도시계획도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발훼손 부담금 감면 요구 또한 "훼손부담금은 주민생업시설을 제외하고는 도로 · 철도 등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에 예외 없이 부과하고 있어 전통사찰에 한해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도 종교시설만 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방식이나 요율 등에 대한 용역조사가 끝나는 10월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오 스님(고양 흥국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종교적 형평성 논란과 관련 "전통사찰은 특정 종교만의 시설이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문화유산"이라며 "관계당국이 불교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통사찰에 대한 그린벨트 및 공원 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英 그린벨트제 타산지석으로

정태용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은 '외국의 그린벨트 제도' 발제에서 "이제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설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이 단순한 개발억제기능 외에 시민들에게 얼마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개발 토지의 특수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훌륭한 타산지석으로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영환 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은 "그린벨트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익집단과 구역주민, 시민 · 환경단체들이 커다란 관심을 지켜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제안했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현재의 제도는 국가가 전통사찰의 원형마저 기형으로 만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제도"라고 꼬집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의 문제점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통사찰과 개발제한구역이 각기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교구본사주지聯 "개정 촉구"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불교 규제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결의문에서 "전통사찰은 각종 국가 법령의 규제에 의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마저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사찰 증개축 면적 규제 완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개발훼손 부담금 부과 철폐 △중첩 규제 조항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만 '전국 강원 교직자 연수'를 마치고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에서 '전국 강원(승가대학) 교직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 참여했던 효탄 스님(운문사 승가대학 강사 · 사진)이 소감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한국 불교의 미래 '교육'에서 찾아야

효탄 스님 (운문사 승가大 강사)

모든 것은 흘러간다. 무상(無常)이다. 때문에 더욱 더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마친 이틀 뒤, 숨도 돌릴 틈 없이 3박 4일의 불광산사-중태선사-법고산사 교육연수를 위해 대만 행 비행기를 탔다.

불광산사의 명성은 익히 들은 바였다. 40여년의 짧은 세월에 이러한 대형 불사를 이룩한 것은 기적에 가까울 지경이다. 그러나 그 답은 "교육이다"라고 도감원장 훼이추안(慧轉)스님은 명확히 말한다.

불광산사의 처음 시작은 '불학원(佛學院, 우리의 전통강원)'에서부터였다. 불학원 교과목 중 눈에 띄는 것은 임제종맥을 잇고 있으나, 조사어록이 '싱윈 대사 어록'으로 대치된 느낌이었다. 이것은 중국 본토를 뒤로 하고 밀려 나온(?) 대만 불교의 특징이겠으나, 한편 같은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큰 선지식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1967년 개창된 불광산사의 사세(寺勢)는 대만 내 70여 곳의 사찰과 라디오, 케이블 TV, 신문을 운영하고 세계 5대양 6대주에 200여 곳의 사찰을 관할하며 불교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40년 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면서도 불교의 사회화 · 국제화에 성공한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들은 불학원 안에 이미 랩(Lab)실을 갖추어 놓고 있으며 10단계의 외국어 교육을 필수로 시키고 있었다. 도서관 시설도 장서와 규모는 물론이고, 학인들을 위해 좌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다. 또한 비구 · 비구니(남녀) 평등, 재가자 · 출가자(승속)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정신이 재가자의 자연스러운 출가를 유도하고 비구 · 비구니 및 출 · 재가의 융화와 존경을 이끌어내고 능력별 평등을 바탕으로 대만불교를 국제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날 중부의 중태선사로 바삐 향했다. 중태선사는 안내자의 말대로 "말이 필요 없고 눈으로 보시라"고 했듯이 불광산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찰이었다. 우리 돈으로 2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여된 36층, 115m, 연건평만도 2만5000평이 넘는 현대식 대형 사찰에 1600명이 수행하고 있었다.

부주지 지엔다(見達) 스님은 중태선사 역시 그 발전의 모태를 "교육-인재불사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간단히 "'창건주인 외이지에(惟覺) 스님의 유지에 따르는 신도들의 순수한 보시에 의한다"고 잘라 말해 우리는 입을 다물기도 하였다.

다음 날 세 번째로 찾은 곳은 북부의 진산(金山) 법고산사였다. 법고산사는 셩옌(聖嚴) 대사의 원력 아래 '세계불교교육단지'를 지향하며 8만평의 부지에 사찰 자체를 대학캠퍼스처럼 꾸며 놓았다.

법고산사는 중화불화연구소와 법고산산 승가대학 안에 불학원, 승려양성반, 선학원이 개원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석 ·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불학원은 4년제이며 출 · 재가자 모두에게 입학이 허용되어 있으며, 입학 1년 후 자연히 출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90% 이상에 이른다 한다.

한마디로 대만 불교의 저력은 '철저한 교육을 통한 융화와 결집력(조직력)'이었다. 찜통더위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대만 불교 교육현장을 들러본 강원교직자 스님들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전통과 현대교육의 조화'라는 화두를 들고 돌아왔다.

북한 핵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한다!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고, 우리는 인질상태가 되어 끌려 다니는 상황이 되었다.
- 2.13 합의는 핵문제 타결의 시작에 불과하며, 북한은 첫 단계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북한 핵의 최대 희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 북한 핵이 폐기되어야만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평화가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이룩 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최상의 수단 이다.
-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전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자주적 안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하므로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 한미연합사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군이 현대화, 정보화 될 때까지 상당기간 존속되어야 한다.

현재 1,000만명 서명운동은 재향군인회와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전국민이 합심하여 추진한 결과 이미 500여 만명이 서명하여 주셨고, 곧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진 본 서명은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차기 한국정부에 제출하여 북 핵 폐기와 연합사 존속에 대하여 한 · 미간 재협상토록 강력한 요구와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 입니다. 국민 여러분 ! "1,000만명 범 국민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켜나갑시다.

참여 회원의 성금이 나라를 지킵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366501-01-078314 (예금주 : 김효은)
신한은행 110-217-526944 (예금주 : 김효은)
농 협 1193-02-013644 (예금주 : 김효은)
우 체 국 104836-01-001461 (예금주 : 김효은)

1,000만명 서명 추진본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9-5 (신한오피스텔 601호)
Tel.02-542-1012 Fax.02-544-0107

공동대표 정래혁(전 국회의장)
김상태 김영관 김현욱 류기남 박세직 박희도
법홍스님 안응모 오영찬 오자복 이명현 이광선
이상훈 이용규 이종구 정기승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TEL.02) 2266-3760 http://nabuco.org

상임대표공동회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공동회장 김철회 김홍래 박일룡 송재운 안병태 이건호 이종구 이희자 정인악 정진태 최기덕 최명준

돈 잘쓰는 지혜 '집중 연구'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초격 스님…분담금 개선·수익 다변화 중점

"이런 재정 상태라면 조계종 3년 안에 파산한다." "이런 구조로 종단이 운영되는 게 신기하다." 조계종 재정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은 지난 10년간 예산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다. 규모는 커지고 쓸 곳도 많아지고 있지만 분담금 외 특별한 세수확보방안이 없다. 공찰보다 사설사암이 더 많은 현실에서 분담금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담금 또한 형평성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총무원은 종단 재정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수익 다변화를 꾀해야 하지만 속수무책이다. 일반 사찰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일부 사찰은 고사위기에 빠졌다. 특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라 종단 및 사찰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단은 수입증대를, 사찰은 재정 개선을 이루는 윈윈(Win-Win)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내에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가 발족됐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를 풀기 위해 승가에서는 초격(파주 보광사 주지)·금강(해남 미황사 주지)·심산(부산 홍법사 주지)·주경(중앙종회 사무처장) 스님이, 학계에서는 김응철·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구병진 박사(서울대 경영학)가, 일반직종무원 출신으로 황찬익 서울 봉은사 종무실장과 박재현 평창 월정사 종무실장이 참여했다.

연구위는 5월 31일, 6월 13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밑그림을 그렸다. 첫 번째 회의결과 연구의 중점과제는 분담금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수익 다변화 문제도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예산종회 이전까지 분담금 문제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위 위원장에 초격 스님을, 간사에 유승무 교수를 선출했다. 연구를 2개년 계획으로 잡고 1년차에는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2년차에는 '종단 및 사찰 수익 다변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분담금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을 위해 유승무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하고 김응철 교수, 구병진 박사, 황찬익·박재현 종무실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연구위는 필요에 따라 출·재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구본사주지스님 및 중앙종회 의원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개혁만이 일류대학 합류 지름길"

interview

영배 스님 동국대 이사장



"기존의 보수적이고 낡은 관습을 떨쳐버리고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는 것만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동국대가 명문 사학, 더 나아가서는 세계일류대학으로 합류하는 지름길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사진) 6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영배 스님은 "현재 새 총장이 취임해 108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학사운영과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급선무인데 법인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동국대 예산 가운데 법인 전입금은 현재 거의 없다.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 법인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망실 토지도 많이 찾아냈다. 부동산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으면 재산 활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자산은 1600여만 평 정도가 된다.

▲동국의료원 산하 병원도 재정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데.

-각 병원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구매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 도매상인 이지메디컴과 협약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료품들을 공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연간 2억원 이상의 정보이용료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등 재원마련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각 병원에 행정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도입해 특히 일산불교병원은 올해 말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일산병원 손익분기점
우수한 교수진 확보 중요해

▲오영교 총장의 108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교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

-학내 구성원, 특히 교직원들은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과거의 관습을 뜯어 고치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으로 인정하며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동국대의 발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은.

-현재 동국대 남산 캠퍼스의 부지는 4만 5000여평으로 강의실과 연구공간이 부족하다. 고도제한에 묶여 증축이 쉽지 않다. 국가땅으로 돼 있는 운동장과 수영장 등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만 수월치 않다.

우선 학림관과 동국관 등을 이노베이션해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신공학관과 기숙사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 교원확충도 할 생각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는 우수한 교수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에 1억 기부
부산 영일암 현응 스님

부산 영일암 주지 현응 스님이 6월 11일 학교발전과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1억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현응 스님은 이번 기부 외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10명에게 매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2002년에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건립에 써달라며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그동안 동국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사전심의제도' 도입될 듯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에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주경 스님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2차 법규위 회의 후 "법규위 간사스님, 중앙종회 사무처 등이 참여해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초하루 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수행과 나눔에 대한 리플릿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 사찰 수행과 나눔 주제로 공동법회

풍경소리와 연계 나눔운동 지하철 홍보 계획

6월 15일 오전 11시 조계종 전국 사찰에서 수행과 나눔을 주제로 한 초하루 공동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사업 기본방향인 '수행으로 입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자'로 잡고, 특화사업으로 '1인 수행, 1단체 1나눔'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모색하고 있다"며 "수행과 나눔에 대한 인식의 내·외연을 확산하고 교계 내외에 캠페인 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공동법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 교구본사는 본사 법당에서 동시에 진행했으며 직할교구의 경우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에서 리플렛과 홍보엽서 등을 초하루법회에 참여한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이를 통해 보시수행에 기반한 나눔운동의 인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풍경소리)'과 연계해 전국 각 지하철 내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구파발역과 이수역에 특별전시장을 마련해 6월과 7월 홍보활동을 펼친다. 남동우 기자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3보 1배 등 진행

제26차 전국불교청년대회

전국 불교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제26차 전국불교청년대회가 열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는 6월 23~24일 대구 동화사와 한국불교대학에서 '나눔으로 하나되는 열린마음 열린청년'을 주제로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청년 불자의 힘으로 불국정토를 구현하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널리 포교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청년대회는 생명나눔 전야제,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3보1배, WFBY임원초청 국제교류행사, 불청대회, 화합의 마당, 대동놀이, 지구문화제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24일 오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열리는 불청 '범종을 울려라'는 각 지구별로 10명이 출전해 만해사상과 기초교리를 함께 푸는 퀴즈 경연대회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관음사 해결에 동참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제주 관음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시몽 스님의 직무대행 임기 내에 관음사 주지 후보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작금의 관음사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합리적인 종무 집행과 엄정한 종법 적용으로 조속히 관음사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일붕선교종 종정 추대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4대 종정 고성 대종사(사진) 추대법회가 6월 22일 오후 1시 서울 세검정 하림각 신관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봉행된다.

고성 대종사는 1955년 부산 범어사 설봉 스님을 계사로 일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61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김원우 기자

평창 유치기원 대법회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20여일을 앞두고 평창 유치기원 대법회가 6월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춘향 강원도민 불교신도회(회장 최경희)가 주최한 것으로 강원도 불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서산 김포 지회 창립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서산과 김포에 잇따라 지회를 창립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조직망 구축에 팔을 걷어부쳤다. 불교환경연대는 6월 30일 오후 1시 서산 부석사 대웅전에서 첫 지회인 '서산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또 7월 7일 오후 3시 김포 효원문화연수원에서는 '김포불교환경연대 창립식'을 갖는다. 김주일 기자



조선불교대선종(大禪宗) 창종 선포문!

창종 선포문

삼계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무명과 삼독 심에 빠져 육도의 윤회 속에서 참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일체 중생을 한량없는 대자대비로 구제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불법을 펴신지 어연 2천6백년이라!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면서 전법의 양상이 여러모로 전개되어 왔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셨고 인류평화의 의의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에 조선불교대선종(大禪宗)은 석가모니부처님을 교조를 하고 선.교.률을 수지 선양한다.
이에 종단운영에 필요한 종헌,종법을 마련하여 불법이 중생교화에 지침이 되고 본 종단이 수행과 전법의 터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한국불교의 일대전환을 위해 「호국불교」「생활불교」「현대불교」의 삼위일체를 갖추어 한국불교 포교는 물론 세계불교발전에 기여 하고자 이에 「조선불교대선종」을 창종하고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불기2551년(2007년) 6월 13일
조선불교 대선종 (大禪宗)
창종주 겸 종정 석 법 정 합장



조선불교대선종 총본산 천정사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168-1번지 전화 : (041)622-3056 전송(041)522-9990

저소득층 아동 위한 장난감 도서관 개원

낙동복지관, 부산 명지동에 門

"난 알루드럼 장난감이 좋아요." "우와! 칙칙폭폭 나무 기차에요"

부산 명지동사무소 옆 35평의 작은 공간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이 6월 13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문을 연 'Happy Children 장난감 도서관'이다.

장난감 도서관은 낙동복지관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 건립지원 복지관 사업에 선정돼 개원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명지동사무소가 별관 1층의 공간을 제공하고 부산 강서구청이 전기세, 수도세 등 제반비용을 지원했다.

개관식에서 진각종 부산경남 교구청장 혜명 정사는 "복지관과 관공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장난감도서관을 열게 됐다"며 "어린들의 창조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902-3467

하성미 기자

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교실 운영

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박물관교실 '어린이 문화 틔움터'를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환경을 생각하며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 하심을 배우는 108배, 숲 해설가와 함께 상원사 옛길 걷기와 명상, 오대산 달빛 체험, 상원사동종 주악비천상 탁본체험, 다도, 즐겁게 배우는 선체조, 신나는 시장놀이와 문화 골든벨 등.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불교문화를 바르게 이해시켜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종교생활을 도움을 주고자 개설했다"고 밝혔다. 동참비 9만원. (033)334-1817 남동우 기자

호남지역 불교문화 '새 場' 연다

호남불교문화원 22일 개원…남도불교문화 답사 등 주력

호남지역 불교문화와 문화재를 지키고 불교문화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호남불교문화원이 6월 22일 문을 연다.

호남불교문화원은 6월 22일 오후 6시 광주불교회관 2층 시민선방에서 '한국불교의 희망, 호남불교 문화의 어제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개원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의행 법사(광주불교문화대학 교수)가 '문화사로 바라본 호남불교'를, 이재수 박사(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전임연구원)가 '호남불교문화의 미래를 위한 제언' 등을 발표한다.

세미나에 이어 개원식을 열 예정인 호남불교문화원은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호남불교문화원은 △남도불교문화 답사 △호남불교문화의 재발견을 위한 연구사업 △호남불교문화 바로알기 불교문화교육 강좌 △초중고학생과 신행단체 및 직장인을 위한 불교문화유산 교육 △정기간행물 및 지역불교 소식지 발간 △불교 문화재 지킴이 △출판사업 △사찰 사지 및 사보편찬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호남불교문화원은 남도불교문화 답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호남지역의 불교문화유산을 찾아가 현장에서 불교를 만나고,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겠다는 것. 이를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할 뿐 아니라 이웃종교인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며, 호남불교문화 저변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답사는 '2008년 광주 전남 방문의 해'에 맞춰 '선사의 숨결 따라'와 '권역별 남도답사'로 나눠 시행한다.

또 불교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를 위해 불교 문화재 지킴이 사업도 전개한다. 구체적인 실행으로는 불교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재 현장을 청소하고 관리까지 도맡을 예정이다. (062)383-3538

"활동가 양성·인프라 구축 힘쓸 것"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실장

"지역의 불교문화를 재발견하여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6월 22일 호남불교문화원을 개원한 이준엽 실장(사진)은 "호남불교 융성을 위해 활동가 양성 및 문화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향후 앞으로 한국사회의 트랜드는 문화가 될 것"이라며 "한국문화가운데 주류문화가 불교인 만큼 제대로 찾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지금시대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전주룸비니(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와 전북대 불교학생회 출신인 이준엽 실장은 1989년 월간 <대원>기자를 시작으로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사에서 18년간 재직했으며, 올해 1월 현대불교신문사를 퇴직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어린이 불교 교육 어떻게 할까"

동련 어린이지도자연수회…불교학교 교사 등 600명 참석

컴퓨터 중독, 입시 스트레스, 난무하는 음란물 등에 무차별로 노출돼 있는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단법인 동련(회장 지현, 이하 동련)은 6월 9~10일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제43회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여름불교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학인스님 50여명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대학 학생, 사찰 소속 유치원교사와 어린이 법회 담당 교사 등 총 600여명이 참가했다.

첫째 날인 9일에는 여름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캠프율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어린이 주위 집중법, 다양한 게임지도 등이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자연 속에서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린이 명상 방법 등을 직접 체험했다.



흙과 마른 나뭇잎 등을 이용해 부처님을 그려보는 참가자들.

연수회 참가자 김경현(29) 교사는 "불교학교에 적용이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자연 속에서 부처님 찾기'는 이번 여름불교학교에서 실용 가능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현 스님은 "어린이의 시선을 끄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불교의 본질을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미래 한국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불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글·사진=하성미 기자

봉은사 '자문기구' 발족

위원장 박원순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25명 구성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6월 13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은사 공식 자문기구 '(가칭)봉은사 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대표)가 맡았다.

봉은사의 운영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될 미래위원회에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활동가들과 김선주 前 한겨레 논설주간, 손석춘 前 한겨레 논설위원 등 언론계 인사, 신계륜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은희 前 여성부 장관, 김건호 봉은사 신도회장(前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 25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옥상(화가) 승효상(건축가) 장용철(윤이상 평화재단 상임이사)씨 등 문화계 인사와 정병호 교수(한양대), 모경환 교수(서울대) 등 학계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미래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봉은사의 운영과 사찰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명진 스님은 "미래위원회는 봉은사라는 개별 사찰의 운영 자문 역할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며 "종교는 다를지라도 각 분야 전문가이자 오피니언리더인 회원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수행과 포교, 대사회 활동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충북교구 호국영령위령재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장 원해)는 6월 24일 오후 2시 청주국민생활체육관에서 '호국영령위령재 및 보살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원해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수많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위령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043)265-7100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새만금 사업 성공 기원 법회

태고종 전북종무원(종무원장 법운)은 6월 23일 오전 10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전시관 앞 특설도량에서 '국운융창 경제발전 기원 새만금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이 법회는 서해안시대의 중차대한 사업인 새만금 간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법회는 제1부 시련 및 괘불이운 의식을 시작으로, 제2부 식전축하공연, 제3부 법요식, 제4부 수륙대재, 제5부 점등식 등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 세미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아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불교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탄생과 죽음, 가족관과 노년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살펴본다.

'불교적 출산관 조망', '불교적 가족관 탐색', '불교적 노년관 탐색'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제20회 삼광 한글 학술상 시상식

삼광한글학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영제)는 6월 8일 부산 삼광사에서 제20회 삼광 한글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삼광 한글 학술상' 수상의 영광은 김수태 교수(신라대)와 이근열 강사(부산대)에게 돌아갔다.

한글 교육에 앞장 서 온 김수태 교수는 한글학회 부산지회 출판이사, 우리말학회 편집이사, 한국언어과학회 편집이사 등을, 이근열씨는 한글학회 부산지회 연구간사와 우리말학회 재무이사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계간지 '문학 사학 철학' 창간

인문학의 중심 학문인 문사철(文史哲)의 활발한 담론을 담아내기 위한 계간지 <문학 사학 철학>이 최근 창간됐다.

한국불교사연구소와 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문학 사학 철학>은 권오민(경상대 철학과)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공동편집주간을 맡고 있다. 두 교수는 1년간 7권의 창간준비호를 발간한 끝에 이번에 창간호를 내게 됐다.

고영섭 교수는 "정통 문법적 지평을 가진 문학 역사 철학과 그것을 토대로 자유로운 지평을 열고, 종교와 예술·어학을 아우르는 잡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탈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동을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짓에서 진정한 자유 함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싱그러워지고 죽어가는 개미를 구해주니 그 개미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렬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을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새,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자리에 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신의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대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찾길 원하노라.

태상가정의 존재 이유

부처님,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아시는 참다운 본성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어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사랑의 공동체인 태상가정을 내놓으셨음이라. 태상가정은 신의 사랑으로 너와 내가 없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오직 신의 사랑만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참행복에 들게 하고자 한다.
태상가정은 개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가슴에 참아버지로 어머니로 때로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과 정으로 신성을 제 각각 그 모양을 달리하여 나타내시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늘의 사랑으로 위로하신다. 본성의 존재가 미치시는 사랑은 너무나 큰 에너지 파동이기에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쉽게 이 사랑에 정화되고 동화된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해 온 심정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모든 타락과 죄악, 업보 등이 사라지고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이 만 인류, 만 영계, 만 종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만 생령이 그토록 그리워 해온 진실한 신의 사랑,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승의 행복이 전체의 존재목적이기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태상가정은 만 인류, 만 생명체의 심정이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자, 귀의처가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에서 뜻을 이룰 준비된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신 어머니가 계심을 압니다. 또한 하늘과 자녀들을 위하여 환경적 기반을 준비하신 귀한 존재가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를 길러 오신 귀한 존재가 계심을 압니다. 이 땅에 신의 사랑을 상속 받아 각기 다른 사명의 기반을 준비해 오신 깨달은 모든 이들이시여! 태상가정에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과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이제 만남의 한 때를 말씀하시니 준비된 태상가정과 만나 하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그리움을 해원하소서.

더불어 불굴의 의지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그대는 고독과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으로 불행하고자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 그대 스스로가 신의 현신임을 알아 신의 자녀가 되고 그 분 자체가 되어 이상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다. 진실한 신의 사랑으로 개인을 완성하여 아름다운 이상세계에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대는 태상가정에 올지어다. 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지어다.

태상가정 연락처 전 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

일주문 안에 가정집이 있네



일주문 안에 있는 속가들.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16 무등산 증심사

큰 산 탓에 오가는 사람 많고 보리밥집 즐비
주차장 주변 새상가…신림 마을 철거 예정
추진위원회 둘로 나뉘고 보상금 협의도 난항

광주 사람들의 삶의 기쁨 하나는, 무등산 봉우리를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나는 무등산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린다. 자신은 더 큰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 자식들의 작은 상처에 눈물 보이는 어머니. 자신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괜찮다 괜찮다는 말만 하시는 어머니. 누구든 무등을 보면 모나고, 뒤틀린 자신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다.

주차장에서 증심사까지는 꽤 먼 거리다. 도시 안에 큰 산이 있는 탓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리밥집으로 유명해진 식당들이 즐비하다. 가게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소개되었노라고 광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당이 맛집으로 소개된 곳이기에 그런 광고도 의미가 없다. 절에 왔으니 부처님 배알이 우선이라 걸음을 서두른다. 신림(新林) 마을 표지석이 보이고, 다리를 건너니 단풍나무 그늘이 좋다. 이내 의재미술관이 나오고, 갈라진 길이 나온다. 왼쪽 가파른 길이 증심사로 가는 길이다.

일주문을 지나자 몇 기의 부도가 있고, 절과 이웃한 몇 채의 집이 보인다. 일주문 안에 속가가 있는 경우는 드문데, 현재의 증심사는 절 안에 승속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다. 대웅전을 들르고, 오백전으로 향한다. 증심사의 대부분 건물이 한국전쟁때 전소되었지만, 오백전은 오백나한을 모신 곳으로 유일하게 화마를 피한 건물이다.

조그마한 크기인 5층 석탑과 7층 석탑은 앙증맞다. 나한전을 지나 석조보살입상을 뵌다. 원통형 보관을 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원래는 담양의 서봉사지에 있었다고 한다. 찾는 사람이 많은지 보살상 앞바닥에는 방석이 깔려있다. 절에서 나와 등산로 쪽으로 향한다. 아주머니 한 분이 상추를 뜯고 있다. "장사도 안 허고, 손발 들어분 지가 한 오륙년 됐어요"라는 유길례(67 · 신림)씨.

"방 한나 정제 한나 오두막집이었는디, 지붕이 내레 앉아 갖고, 글고 보상도 없다고 그랑께나."

증심사 입구 정비 차원으로 신림 마을이 철거될 예정인데, 절 땅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은 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야기를 끝내고 허술한 밥집으로 향한다. 무얼 먹을 거냐고 묻지도 않고, 잠시 후에 밥 한 상이 나온다. 담양이 고향이 이곳이라는 김순임(71. 신림)씨는 음식 솜씨가 좋다. 또한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누구든지 멜치젓 묵어보면, 와따 아짐마 멜치젓 양전하게 했네, 그래요."

서른에 장사를 시작했다 한다.

"나는 밥을 저붐(젓가락)으로 묵으면 양이 안 차. 숟꾸락으로 막 퍼서 묵어야 배가 뿔껑 인나제. 이것저것 너 갖고 잡사 봐. 아따 묵을지도 모름서."

밥 먹는 게 시원치 않다고 나무란다. 살아온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징글 몸썰나게 고상했는디…" 하면서 말을 흐린다.

그때 가게 앞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노부부가 지나간다. 순간 김씨의 얼굴에 부러움이 가득 찬다.

"나는 저른 시상 한 번도 안 살어 봤어."

40년 전 식당을 처음 했을 때, 밥 한 그릇에 300원 했다 한다. 300원짜리 밥이 5000원이 되도록 식당을 하였지만, 부자는 되지 못했다. 식당을 나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책가방을 메고 오는 한 아이가 있다. 학운초등학교 4학년이라는데, 절 바로 아래에 있는 집에 산다고 한다.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시큰둥하다. 버스 종점에서 집까지 보통 25분이 걸린다고 한다. "절에 다니느냐?" 고 물으니, "절도 믿고 교회도 믿어요" 한다. 이유를 물으니, "교회는 믿어서 믿는 거고, 절은 엄마가 믿으니까" 한다.

사하촌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통장 내외를 만나서야 들었다. 현 주차장 주변에 새로 상가를 조성할 계획인데, 2008년 완공 목표라 한다. 주차장 근처에 있는 가게와 땅에 대한 보상은 이미 끝났고, 문제는 보리밥 집이 즐비한 신림 마을인데,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통장(김경자 · 56)은 별로 말이 없고, 곁에 있는 남편(정부연 · 60)이 차분하게 설명해준다.

"추진위원회가 둘이라."

주민을 대표할 추진위원회가 둘로 나뉘어 있어서, 광주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못한 상태라 한다. 빨리 합의를 보고 일을 추진하자는 쪽과 최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자는 쪽이 맞서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마을은 철거되고, 자기 가게를 가진 사람에 한해 40동을 분양 받게 되는데, 땅을 사서 들어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 자연스레 보상금이 문제가 된다.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얼마쯤 보상 받아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저 땅을 사갖고 지서야 돼. 그니까 못 들어가지."

광주=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차밭에 둘러 싸인 증심사.



증심사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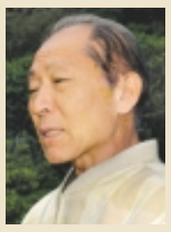


청계재.



신림 마을.

남종화 대가 계산 장찬홍 화백



증심사는 남종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과 연관이 많다. 증심사 뒤쪽 차밭은 의재 선생이 가꾸며 춘설차를 만들었던 곳이며, 증심사 아래 춘설헌은 의재 선생이 기거하며,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차를 마셨던 곳이다. 그 춘설헌에서 골짜기 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의재 묘소가 있고, 멀지 않는 곳에 계산 장찬홍 화백(사진)의 청계재(聽溪齋)가 있다. 노화백은 인터뷰를 시작하자, 의재 선생 얘기부터 꺼낸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글씨도 잘 써야 하지만, 글씨보다 먼저 학문, 학문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의재 선생이 늘 했던 말씀이라 한다.

"계시는 동안 13년 모시고, 돌아가신 뒤 30년 모신 셈이지."

말이 맑고 차분하다.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 그의 귀가 참 순하게 생겼다. 스무 살 무렵부터 의재 선

의재 허백련 선생의 제자
승과 다르지 않은 삶 살아

생을 사사(師事)하기 시작하여, 65세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어린 제자였던 그가 남화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새벽 다섯 시면 일어나. 증심사 새벽 종소리가 네 시 반이면 날 거여. 다섯 시경에 일어나 그리면 그림을 상당히 그리고만."

부지런한 그는 최근 창작열이 더 왕성해졌다.

"야하지 말 것. 속되지 말 것. 천하지 말 것. 지저분하지 말 것. 기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지. 기품이 있어야 할 것. 소나무 같은 것은 특히 기개가 느껴지지."

그의 그림 세계는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소나무 그림을 즐겨 그린다. 그림 한 점을 벽에 걸어 보았더니, 오래된 솔숲 하나가 벽을 대신해 나타난다. 그림에 그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격조가 높다. '자유자재한 견성(見性)'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는 평이 틀리지 않다.

"장천재를 자주 가. 장천재 앞에 가면 태고송이 있고, 그 소나무 건너편에 또 한 그루가 있어. 그 두 그루를 보고 오면, 일 년 동안 쓸 소나무 기운을 받아와."

그의 고향 장흥의 장천재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오면 소나무 기운이 오래 남는다고 한다. 그가 즐겨 그리는 소 그림을 보고, 이청준 선생은 '일견 불교적 견성(見性)의 경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비록 속인으로 머물고 있지만, 그의 생활은 승과 다르지 않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 또한 40여년 산 속에 살며 다다른 내적 경지는 고승의 반열에 이르렀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

일주문



영암대종사 20주기 추모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21일 오전 11시 법왕루에서 영암당 임성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02)511-6070



삼국유사 기획전시관 개관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6월 20일 오후 2시 제7회 삼국유사 문화제의 일환으로 '삼국유사 기획전시관'을 개관한다.(054)383-1161



해인사 현응 스님 초청 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윤환 회장은 6월 24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강부자씨 초청 특강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6월 18일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연기자 강부자씨를 초청 '불교와 나의 삶'을 주제로 '특별한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월 12일 열린 기념법회에는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동 60년사' 발간기념 법회

광동중·고교 강당서…월운 스님 등 300여명 참석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6월 12일 광동중고등학교 교내 강당인 운악관에서 '광동 60년사 발간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겸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흥국사 주지 화범 스님, 보광사 주지 초격 스님, 봉영사 주지 광동학원 이사 지환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운 스님은 축사를 통해 "광동학원의 건학이념인 '손가락과 손바닥의 관계'를 항상 가슴 깊이 새겨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경과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면 스님도 "광동학원 60년을 한 권의 책으로 조망할 수 있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4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편찬위원과 집필위원들에게 감사하며, 6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인사말을 했다.

<광동 60년사>에는 총 567페이지 분량에 1946년 광동초급중학교의 개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변천 및 교육개혁 과정, 동문회 활동, 학교운영조직의 변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돼 있다. **남양주/글 ·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승·재가 수행·포교 분담 뚜렷해야"

하버드大 비교종교학 박사학위 받은 일미 스님



"한국 근대 불교사를 논할 때 일본 불교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될 정도로 일본불교는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1910년도에는 한국에 100여 개의 일본 포교당을 세울 만큼 자국의 불교 포교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요. 이 과정에서 한국 스님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일본 스님들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불교는 종파간의 분쟁으로 아시아 불교를 통불교화 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불교의 한계입니다."

미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이달 초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12일 일시 귀국한 일미 스님은 박사학위 논문인 '한일 불교관계사(1877~1912)'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 연구해온 한국불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려면 승가와 재가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승가는 수행쪽으로 재가는 포교쪽으로 역할 분담을 뚜렷이 해야 하지요. 하지만 지금 재가 불자들은 승가를 보필하는 수준에 주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보스턴 인사이트 명상센터에 거주하며 하버드대에서 논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일미 스님이 공부에 취미를 붙인 것은 16세 때 제주도 법화사에서 시몽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한 뒤부터다. 2년 만에 중고교 검정고시를 패스한 뒤 동국대 불교학과도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했다.

1994년 불교종단 개혁에 참여도 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열망은 식을 줄 몰랐다. 유학을 결심했다.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을 비롯해 많은 스님의 도움을 받아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 석사학위 취득에 이어 5년 만에 박사가 됐다.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한국 불교를 알리는 '포교사'가 되겠다는 일미 스님은 앞으로 1년간의 포스닥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대한불교진흥원 이·감사
김규칠 · 전경두씨 선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6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3차 이사회'를 열고 김표진 이사 후임에는 김규칠 감사(사진 왼쪽)를, 김규칠 감사 후임에 전경두 前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신임 김규칠(65) 이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 신문대학원 석사를 마쳤고, 오스트리아 비엔나국립대(국제경제법 및 국제관계) 수료, 일본 와세다대학(일본사 및 일본문화)에서 수학했다. 주 스리랑카 참사관, 서울논단 공동대표, KBS 이사, 산업기술정보원장, 제5대 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다.

전경두(73) 감사는 부산대와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동국제강 대표이사 사장 역임(2001~2006)에 이어 현재는 동국제강 상근 고문으로 있다. **김주일 기자**

"영통사 성지순례 통일 밑거름 되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은 6월12일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제33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한 후 일부 언론에서 개성관광으로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 "영통사를 지어놓고 찾아보지도 않는다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스님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남북정부 관계자들과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남과 북이 서로 협의해 계속적인 성지순례가 이뤄지도록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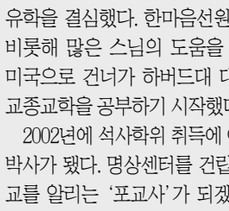
"종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 열반지이며 탑비와 유골이 모셔진 개성 영통사를 참배할 수 있는 것을 천태종도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스님은 "분열되어 있던 고려 불교계를 통합하여 천태종을 개창했던 대각국사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의지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스님은 또 "영통사를 참배하는 것은 단순한 성지 순례가 아니다"며 "성지순례가 남북화해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반도 불교의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양=김원우 기자

불기협 회장 법보신문 남배현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 제14대 회장에 법보신문 남배현 차장이 선출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으로 남배현 차장(사진 왼쪽)을, 부회장으로 월간 불광 양동민 기자를 선출했다.

남배현 차장은 "여러 회원사들의 어려움으로 불교 언론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취재 환경을 개선하고 기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청주 광덕사 네팔왕실무용단 초청 공연



청주 광덕사(주지 일봉)는 6월 10일 청주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네팔국립왕실무용단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청주불교방송 사장 지원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일봉 스님은 네팔 정부로부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태고종 승정 혜륜당 기성 대종사 영결식



태고종 승정 혜륜당 기성 대종사가 11일 저녁 신촌 봉원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9세, 법랍 74세. 6월 13일 신촌 봉원사에서 승정원장(僧正院葬)으로 열린 영결식은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종회의장 인공, 사정원장 월운, 부원장 보경, 환우, 서울중서부종무원장 보봉, 인천종무원장 대은 스님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부산 시니어클럽聯 '노인일자리 박람회'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연합회(운영위원장 정련)는 6월 14~15일 해운대 벡스코(BEXCO) 1층 전시장에서 '2007 부산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일반 구인업체와 간병, 산모도우미, 공인중개사 등의 노인취업훈련관 200여 곳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3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구례 화엄사, 통일쌀 경작단 모내기 동참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6월 6일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서 구례군 농민회, 기아자동차 광주지부, 조선대학생회와 통일쌀 경작단 모내기 작업을 펼쳤다. 화엄사 스님 50여명과 기아자동차 노조원 100여명, 구례군 농민회 등은 5000여평의 논에 모내기를 한 뒤 점심공양을 함께했다.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대 종정 고성대종사 추대식

본종 제4대 종정 고성 대종사(미국 워싱턴 세계중앙선원(World Zen Center) 원장이자 미국 선종대학(American Zen College) 총장) 추대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수희 동참을 희망합니다.

◈ 일 시 : 2007년 6월 22일(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하림각 신관 2층 ☎ 02)396-2442

◈ 문의처 :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02)394~9468/9

◆ **자문위원 :** 경호 계전 광탄 규암 대덕 도만 도배 도운 도원 도응 도찬 도활 만상 무용 무위 법만 법용 법진 법천 본자 완호 자명 정봉 지원 眞性 眞惺 태허 혜광 혜국 혜문 혜성 혜오 혜진 효담 (가나다순)

◆ **봉행위원장 :** 현공 ◆ **부위원장 :** 법우 도현

◆ **지도위원 :** 경공 고광 공덕 관무 관일 광순 기명 기봉 기원 남용 대경 대성 대원 대월 덕명 덕산 덕우 덕환 도광 도명 도연 도운 도원 도응 도현 동월 동훈 두암 마제 명달 명봉 명호 몽룡 묘연 무불 무상 무원 무친 미산 법광 법교 법근 법달 법도 법련 법만 법묘 법민 법상 법송 법연 법영 법장 법조 법현 법혜 법화 벽산 보광 보덕 보선 보현 서공 선장 선철 선현 성공 성덕 성문 성밀 성오 성우 성주 세정 세진 송담 수연 수월 수현 순담 영수 오룡 와룡 왕연 운광 원경 원명 원정 원진 원천 월산 월연 월오 월해 월현 인오 일진 자광 자림 자운 자행 자혜 정법 정암 정원 제법 종산 지관 지범 지산 지승 지연 지천 지현 지혜 진아 철민 철수 철종 청공 청암 초혜 해광 해담 해등 해룡 해선 해성 해심 해안 해암 해운 해월 해주 행산 행원 현공 현묵 현수 현오 혜공 혜곽 혜관 혜광 혜도 혜삼 혜성 혜송 혜심 혜인 혜철 호암 효일 효정 희정

◆ **봉행위원 :** 강대연 강도현 강석태 강순애 강승대 강정순 강정희 강지오 강평식 강홍철 고광순 고금순 고선희 고성민 고승진 고오연 고은정 고은희 고인덕 고정길 고창식 고충준 공민중 곽영근 곽윤기 곽종환 권기순 권기주 권상탑 권영구 권영래 권진석 권팔만 김 숙 김 훈 김경호 김고경 김구희 김규덕 김규백 김근식 김금옥 김기석 김길섭 김남학 김대각 김대용 김동구 김동옥 김면암 김명숙 김명진 김문옥 김민구 김민현 김방일 김범수 김병락 김병철 김복열 김상문 김상술 김상임 김선태 김성규 김성대 김성숙 김수열 김숙자 김순배 김순옥 김승억 김애숙 김양순 김양자 김영금 김영숙 김영창 김영훈 김영희 김예섭 김예자 김완식 김용호 김우영 김원진 김응규 김인순 김일순 김자현 김재경 김정순 김정태 김정희 김종국 김준기 김진갑 김진명 김천용 김춘자 김태민 김태홍 김현갑 김현수 김현주 김형선 김형술 김혜경 김혜영 김호연 김홍석 김휘진 김희기 김희덕 김희식 김희진 노순예 노연식 노정현 노정현 노효순 대련화 대륜심 대법화 대비심 류미자 마향숙 묘련화 문대곤 민병택 민영옥 박달선 박동열 박보석 박성근 박순남 박순덕 박원규 박윤준 박일순 박일순 박정수 박정희 박창경 박희자 배병준 배선용 배옥화 법계화 법화심 변경자 변봉현 서길자 서동훈 서성택 서애숙 서억석 서영애 서윤래 선양희 성광수 소영식 손인산 손정수 송이순 송종수 수월심 신덕승 신동기 신법운 신상태 신용식 심진희 안명숙 안석분 안용숙 안용희 안효명 양순자 양혜옥 엄진영 연화행 염정섭 오금주 오수규 오혜자 우미란 우종문 우진혁 원기연 원등만 유영두 유향미 윤 섭 윤경배 윤삼효 윤성노 윤용암 이강옥 이경선 이기호 이두리 이만섭 이명구 이명숙 이명재 이무자 이문선 이법화 이봉현 이삼순 이상준 이상철 이석근 이선재 이성숙 이성위 이손순 이순희 이영애 이용범 이일옥 이장희 이재옥 이정원 이정환 이지혜 이창두 이창헌 이춘하 이태숙 이해춘 이현정 임덕임 임순덕 임영자 임정심 임정이 임주화 임홍순 자비행 장순옥 장철호 장혜윤 전미선 전성자 전지혜 전필금 정상하 정수연 정연자 정태자 조규현 조민숙 조방선 조선화 조애자 조은희 조희자 주대옥 주상식 주숙자 주영옥 주원각 진공심 진숙희 진철문 차정자 최경희 최동식 최명자 최부금 최송식 최순녀 최인선 최정자 편영숙 하부자 한상오 한희정 허 경 허순애 홍봉오 황숙현 황순득 황재수 황현욱 남궁은숙

(가나다순)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대 종정 추대 봉행위원회 위원장 **현 공**

BBS 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부처님 마음 더 큰 메아리로 퍼지길…

‘불교산악인회 10주년 기념법회’ 현장

2000여 불자 산악인 금정산 등정 후 법회
제주·밀양·대전 새로 가입, 총 41개 단체
“생명 아끼는 산악인될 것” 발원문 낭독도

산에 오르는 행위를 수행으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자 산악인’이라고 부른다. 산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산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자비의 마음을 담는 것은 등산(登山)이라는 행위의 위대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6월 10일, 부산 범어사가 자리 잡은 금정산 기슭에 불자 산악인들이 모였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양춘동)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와 제10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찾아온 것이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해발 802m). 바위산이긴 하지만 산길이 험하지 않고, 금샘과 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금정산성 등이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코스다. 부산불교산악회(회장 강갑균) 회원들은 일찌감치 등산로 곳곳에 자리 잡았다. 길 안내와 회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다.

오전 9시. 성남불교산악회(회장 김인현) 회원 40여 명이 등산을 시작했다. 성남불교산악회는 하루 전인 9일 저녁 성남을 출발해 10일 새벽 통도사에서 새벽 예불을 모신 뒤 바로 금정산 산행에 임했다. 기업 임원으로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김인현 회장(유한킴벌리 이사)은 “한 달에 한 번 산악인회 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피로도 풀리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물을 나눠 마시기도 하고 흥겨운 노래를 불러주며 힘을 북돋우는 모습에서 회원들 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범어사를 출발한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금정산성에 도착했다. 산성 누각에 걸린 플래카드와 시원한 약수가 회원들을 기다린다. 땀 흘린 후 마시는 물 한 모금은 그야말로 감로수(甘露水)다. 나무 등걸에 앉아 다리를 토닥이며 고당봉을 바라본다. “아휴. 아직 한참 남았잖아.” 아직 까마득한 봉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한숨이 새어 나온다. 그러자 한 회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한다.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면 금방 지쳐요. 천천히 오르면서 나뭇잎도 만지고 계곡물에 손도 담그고 숨을 깊게 들이쉬면 ‘산에 왔구나’ 하고 느끼죠. 그게 등산의 참 맛이에요.”

말 한마디에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자 힘이 솟는다. 다시 산을 오른다. 산성까지 원만하던 산길이 금정산성을 기점으로 조금씩 가팔라진다. 발걸음은 더디지만 오히려 몸은 가볍다. 하지만 김순현(68) 할머니의 가방은 정상에 가까울수록 무거워진다.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물병이며 쓰레기를 주워서 가방에 담기 때문이다.

“버린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주워야지. 산에 오는 사람들이 산을 아껴야 더 오래 산을 볼 수 있잖아요.”

오전 11시가 넘어가자 마창불교산악회, 원주불교산악회, 대경불교산악회를 비롯해 전국 지역 산악회 회원들이 산행을 시작했다. 고당봉에 올라 금샘을 거쳐 다시 범어사로 돌아오기까지 누구 한 명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산행이 끝났다. 범어사 공양간에서 먹는 비빔밥 한 그릇에 산행의 피로가 풀린다.

오후 2시, 본행사인 제10차 전국불교 산악인대회가 시작됐다. 법회에는 전국불교산악인회 명예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대회장 양춘동 총재,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부산불교신도회 홍병수 회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제주불교대학산악회와 밀양불교산악회, 대전중앙불교산악회가 새로 가입했다. 이로써 지역 단위산악회는 총 41개가 됐다. 또한 김춘식 이사가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산악인회를 이끌어 오는데 노력해 온 강갑균(수석부총재) 지우하(부총재) 김만국(제주지부장) 정대석(광주불교산악회 사무국장)씨가 포교원장상을 받았다.

혜총 스님은 법문을 통해 “그저 산이 좋아 등산하는 것이 아닌, 진정 자연을 부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가 된다면 산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참다운 불자로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자산악인들을 독려했다.

법회를 마치며 2000여 불자 산악인들이 낭독한 발원문에는 진정한 불자로, 진정한 산악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다. 금정산 자락에 울린 이들의 음성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갈 것이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연을 보존하고 살리는 산악인이 되겠습니다.”

부산/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산행(山行)이 곧 수행(修行)입니다.” 6월 10일 부산 금정산에서 열린 제10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에 참가한 성남불교산악회 회원들이 금정산성에 도착해 함박웃음을 터뜨렸다.(사진 맨 위) 산행을 하는 불자 산악인들과(사진 위) 범어사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4>임종할 때 무심해야

중생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이 움직여서 분별된 알음알이를 일으키니, 중생의 모습을 취하면 범부에, 부처님 경계에 집착하면 성인이라는 분별된 상을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중생의 잘못된 병통으로서 자기 경계에 집착하여 참된 공부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범부의 알음알이를 없애 주려는 방편으로 먼저 성인의 깨달음을 내세우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범부와 성인 이 두 가지 모두는 중생의 분별심일 뿐 '그 실체는 공(空)이어서 본디 결정되어 있는 성품은 없다'라는 중도 법문을 설하셨다. 중생의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알음알이가 사라지면 이 알음알이와 마주보는 성인의 깨달음도 저절로 사라져 일체 분별이 사라진 무심도인(無心道人)이 되기 때문이다. 성인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아직도 중생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육도에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가귀감> 74장에서 말한다.

凡人 臨命終始 若一毫毛 凡聖情量不盡 思慮未忘 向驢胎馬腹裡托質 泥犁鑊湯中煮煠乃至 依前再爲蠢蠕蚊虻.

누구이든 임종할 때 털끝만큼이라도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나귀나 말의 뱃속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지옥의 기름 끓는 가마 속에 처박히기 쉬울 것이며, 개미나 모기 같은 몸을 받게 되기도 할 것이다.

중생의 견해가 범부나 성인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변하는 것은 모두 스스로가 지은 업의 그림자가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 범부의 알음알이는 버리고 성인의 깨달음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불을 피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다. '범부의 알음알이'와 '성인의 깨달음'이란 마음으로 분별하여 만든 마주보는 개념으로서 모두 변견(邊見)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변견이란 시비 분별로써 한쪽에 치우쳐 자기 주장만 하는 잘못된 견해를 말한다. 이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려면 범부의 알음알이에서 실체가 없다는 공성(空性)을 보고, 마찬가지로 성인의 깨달음도 공성(空性)임을 깨달아, 범부와 성인 양쪽에 대한 집착을 다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모든 집착을 벗어나는 무심중도(無心中道)이다.

범부든 성인이든 양쪽 모두 집착에서 벗어나야
무심중도하면 지옥이 나타나도 두려운 마음 없어

이렇게 모든 집착을 벗어나 무심할 수 있다면 저절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 경계를 따라 가고 올 것이 없는 본디 성품을 지니게 되어 어떤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부처를 보아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이 나타나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 그것은 다 헛된 경계이니 이 경계의 실체는 본래 비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범부의 알음알이가 남아 있어 성인의 깨달음에 집착하게 된다. 결국 경계를 따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이 잘못으로 육도에 윤회하다 지옥이나 축생의 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白雲云 設使一毫毛 凡聖情念淨盡 亦未免入驢胎馬腹中 二見星飛 散入諸趣.

백운(1025~1072) 선사가 말하기를 "한 티끌 남아 있던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생각조차 깨끗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직 나귀나 말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였으니, 두 소견이 번뜩이면 육도 윤회에 들어가리라.

두 소견이라 함은 마음속에 주객(主客)이 남아 있는 생각을 말한다. 생각하는 주체인 주(主)와 대상으로서 객(客)인 생각을 내세우는 분별심을 아직 끊지 못한 것이다. 한 티끌 남아 있는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생각조차 깨끗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주객으로 나누어진 두 소견이 번뜩이는 것이다. 이는 아직 미세하고도 미세한 내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 업의 뿌리인 무명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므로 육도에 윤회할 수밖에 없다.

중생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업연(業緣)이 커져 뒷날 얼마든지 나귀나 말의 뱃속으로 들어가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 중생의 생사는 세찬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모든 번뇌를 단칼에 끊어 없앨 수 있는 보배로운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烈火茫茫 寶劍當門.
세찬 불이 활활 이니
보배 칼이 번쩍인다.

세찬 불이 활활 인다는 것은 번뇌가 끝없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이 번뇌들을 단숨에 끊어 없애자면 공성(空性)임을 아는 보배 칼과 같은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보배 칼과 같은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시비와 분별을 떠나 있는 무심을 말하고, 이 무심이 바로 도에 계합한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깨친 사람은 모든 시비와 분별이 사라졌으므로 헛된 생각이 없어 무심하다. 서산 스님은 이 내용을 풀이하여 말한다.

此二節 特開 宗師無心合道門 權遮 教中念佛求生門. 然 根器不同 志願各異 各各如是 兩不相妨 願諸道者 平常隨分 各自努力 最後刹那 莫生疑悔.

이 두 구절은 수행에 뛰어난 종사(宗師)들이 무심으로 도에 계합하는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을 특별히 보여줌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에서 염불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염불구생문(念佛求生門)을 방편으로 막아 놓았다. 그러나 공부하는 바탕이 다르고 뜻과 원력이 달라도 저마다 옳은 점이 있어 서로 방해되지 않으니, 바라건대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소 제 분수에 맞춰 저마다 노력하여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는 공부에 의심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서산 스님의 이 풀이는 무심한 경계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맞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생은 바탕이 다르고 뜻과 원력이 제각기 달라도 저마다 옳은 점이 있으므로 이것만 이해한다면 공부에 조금도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연에 따라 염불하여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숨이 끊어질 찰나에도 오직 일념으로 염불을 해야 한다. 숨이 끊어질 마지막 찰나에 참선하던 사람이 참선을 의심하고 염불을 한다거나, 염불하던 사람이 염불을 의심하고 참선 못한 것을 뉘우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공부이든 한번 믿고 시작했다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밀어붙여야 효험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공부이든 바르게 한번 믿었다면 분별심을 내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 결실을 얻는 공부, 이것이야말로 무심 도리라고 할 만한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는 산스크리트어의 아눗타라삼먁삼보디(anuttara samya-sambodhih)를 한문을 번역했을 때 소리 나는대로 음사한 말이다. 줄여서 아뇩삼보리, 아뇩보리 라고도 한다. 뜻으로 풀이한 말이 바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 의역하기도 했고, 무상정진도(無上正眞道), 무상정변지(無上正遍知)라고도 의역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지혜로 위없이 뛰어난, 바른 평등원만이란 뜻이다. 부처님의 최상 절대의 완전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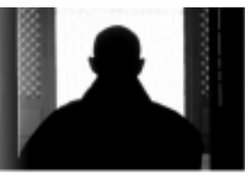
더 이상의 수승한 경지가 없는 평등원만한 깨달음을 표현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연기즉공(緣起卽空)의 도리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연기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공의 논리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느니라'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법은 세상만사가 모두 자성이 없이 연기하는 것이라는 표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므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연기하는 것은 곧 공이다. 이러한 법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한 부처님, 그 이상의 진리는 없기에 무상정등각의 의미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쓰는 것이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이자 법의 내용을 함축해 의미하는 말이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6>



예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세상에 어떤 왕이 거문고 소리를 듣고 몹시 즐거워 대신들에게 명령했다.

'매우 사랑스럽고 즐길 만한 소리로구나. 저 소리를 가져오너라.'

명령을 받은 대신들은 곧 거문고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바로 그 좋은 소리를 내는 거문고입니다.'

'내게 거문고는 필요 없다. 아까 듣던 그 사랑스러운 소리나 가지고 오너라.'

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나, 예화는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 불경에서는 긴 스토리가 있는 예화까지 '비유'에 포함시키나, '줄거리가 갖추어진 이야기'란 특성이 있다는 것에서 비유와 다른 점이 있다. 부처님이 전생과 현생에서 만났거나 내생에서 만날 사람들과 얽힌 인연담도 비유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분하면 예화로 나눌 수 있다. 부처님은 교화 과정에서 예화 속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함으로써 내담자가 설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부처님은 '예로 드는 이야기'로 설법 쉽게 이해시켜
증상에 맞게 서적을 읽어주는 '독서치료'가 좋은 예

'거문고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자루도 있고, 바탕도, 여(麗)도, 줄도, 가죽도 있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탈 때에 여러 가지 기구의 인연으로 비로소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 없이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아까 들은 소리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요, 사라져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대왕이 탄식했다.

'그런 거짓 물건을 어디에 쓸 것인가? 거문고란 거짓 물건이다. 그런데 사람을 빠지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부수어 버려라.'"

오온(五蘊)이란 인연 따라 생긴 것이며 덧없는 것임을 예화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예화(例話)란 예로 드는 이야기라는 뜻으로서, 내담자의 이해와 통찰을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살핀 비유는 상황 등에 견주어 상

현대 심리상담에서도 새로운 이론과 기법을 구축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동원한다. 가장 유명한 것이 프로이트가 어릴 적 부모와의 성적인 갈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인용한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신화다. 이제는 신화 자체보다 프로이트의 이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론 설명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 예화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고, 상담자 역시 내담자의 통찰을 이끌기 위해 예화를 활용하기도 한다.

예화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치료 분야도 있다. 내담자의 증상에 맞는 각종 동화나 문학 등을 읽게 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독서치료'가 그것이다. 이는 문학이 치료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대불총 제1회 호국불교 대 토론회

대한민국의 미래와 불교도의 자세

국가의 총제적 난국과 국가안보위기를 극복할 호국호법정신을 깨우쳐 봅시다

"대불총"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의 전통인 "호국호법"의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 시대 정치인들에 의하여 외면당하고 있는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되찾고자 합니다.

오늘의 국가위기에 대하여 한국의 불교계가 속수무책이거나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것은 승가를 비롯한 불교공동체가 그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뭉쳐진 10개의 惡이, 흩어진 萬個의 善을 축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불총은 불교계의 모든 뜻을 모아 진정한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파사현정과 우국충정의 원을 세우신 불교도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2-733-121137 박희도
●농 협 360-02-106901 박희도

■ 일시 : 2007. 6. 27(수) 14:00~17: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토론회 프로그램]
● 개회식 (이건호 / 공동회장)
국민의례, 삼귀의례
● 개회인사 (박희도 / 임대표공동회장)
● 기조강연 (한승조 / 前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의 호국불교와 민중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
● 발표 및 토론 (이석복/예 육군소장)
_제1주제 : 불전을 통해 본 호국호법의 원리
발표자 – 김덕수(재원스님)
_제2주제 : 붓다의 자유 평등과 현대민주주의
발표자 – 정천구(영산대 교수)
_제3주제 : 남북한 불교교류 현황에 관하여
발표자 – 김영국(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_토 론 자 : 김광식(부천대 교수)
윤세원(인천전문대 교수)
_종합토론 및 폐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TEL.02) 2266-3760 http://nabuco.org

상임대표공동회장 박희도(전 육군참모총장)
공동회장 김철회 김홍래 박일룡 송재운 안병태 이건호
이종구 이희자 정인악 정진태 최기덕 최명준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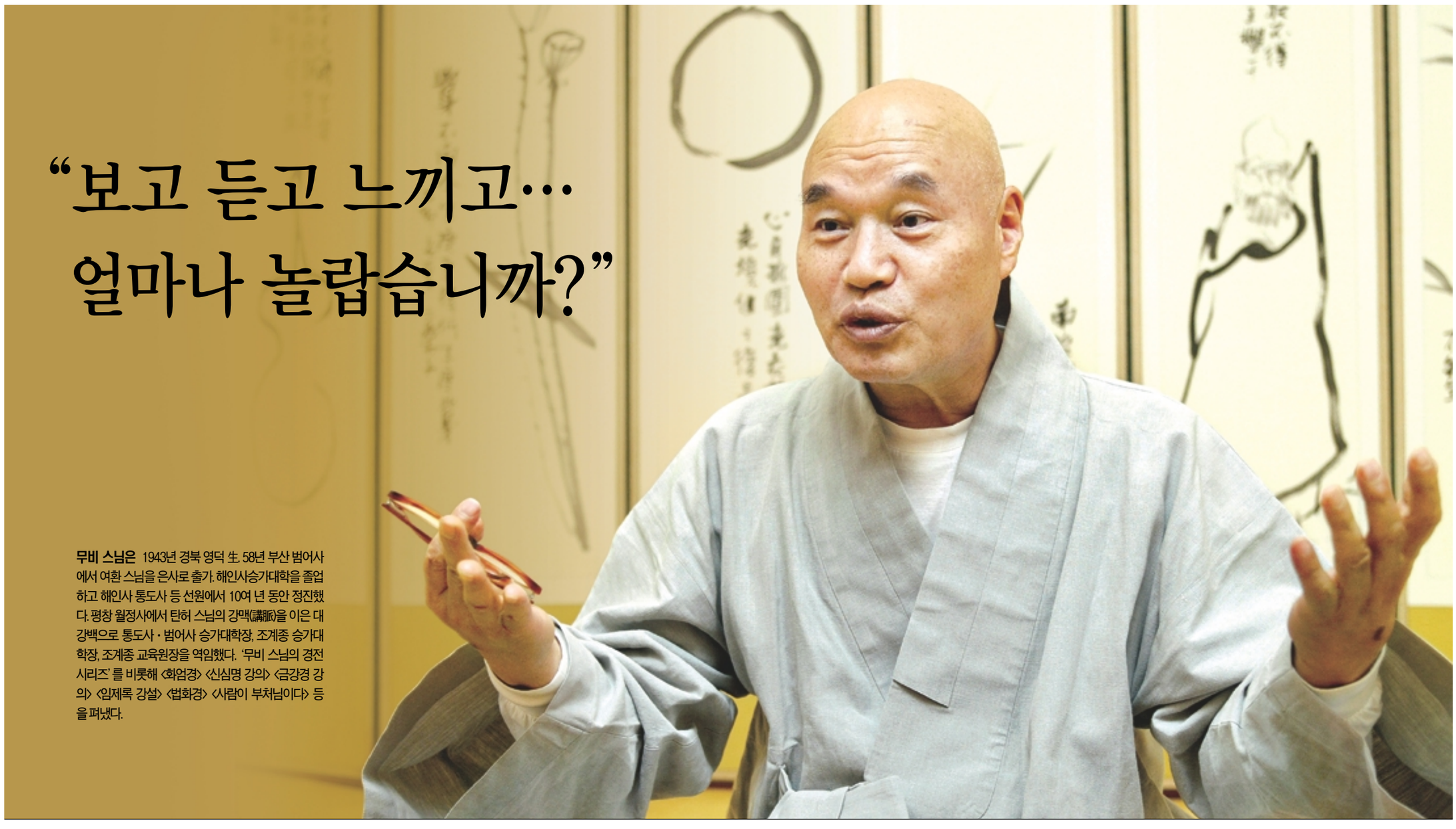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7474-5349



“보고 듣고 느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비 스님은 1943년 경북 영덕 生. 58년 부산 범어사에서 여환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해인사 통도사 등 선원에서 10여 년 동안 정진했다. 평창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의 강맥(講脈)을 이은 대강백으로 통도사·범어사 승가대학장, 조계종 승가대학장,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무비 스님의 경전 시리즈’를 비롯해 <화엄경> <신심명 강의> <금강경 강의> <임제록 강설> <법회경> <사람이 부처님이다> 등을 펴냈다.

무비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선지식을 찾아서

생(生)과 사(死)의 경계를 넘나들다 길을 찾았다.

2003년 12월, 척추에 고름이 생기는 병으로 조계종 교육원장 소임을 놓은 무비 스님. 하루에 수십 번 기절하고 깨어나길 반복하며 생(生)과의 사투를 벌이는 스님에게 신도들이 찾아왔다. 걱정과 안타까움을 내비치던 신도들 틈에서 스치듯 한 마디가 들렸다. “스님 공부하신 것 아까워서 어쩌나.”

퇴원 후 건강을 추스른 스님은 그 말을 가슴 깊이 담고, ‘공부한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인터넷이다.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스님에게 인터넷은 ‘방 안에서 세상과 만나는’ 획기적인 전법의 장(場)이었다. 2004년 11월, 혼자 힘으로 인터넷 카페 ‘염화실(http://cafe.daum.net/yumhwasil)’을 열고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과 법문을 올렸다.

“처음엔 다들 한두 달 하다 말겠지 했어요. 매일매일 글 올리고 회원 관리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늙은이 혼자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하겠나 싶었겠지요.”

현재 염화실 회원은 8800여 명. 입소문을 타고 하루에 300명이 가입한 날도 있다. 스님은 “거품도 많지만 회원들의 10% 정도는 활발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다. 염화실에는 하루 200~300여 명의 회원이 꾸준히 방문한다. 스님의 저서를 매일 1페이지씩 입력하거나 강의 내용을 음성 파일로 올리는 회원들도 있다. “인터넷이 아니면 큰스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이렇게 자주 있을 수 있겠냐”는 회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염화실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지난해에는 스님의 처소에 마이크가 설치됐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스님이 직접 DJ가 되어 인터넷 방송을 열고 법회와 강의를 진행한다. 범어사 염화실에 앉아 미국과 호주, 브라질,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의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비로운’ 경험이다.

물론 스님에게도 ‘안티’가 있었다.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이웃 종교인들의 공격과 회원들의 불만, 이치에 맞지 않는 교리 논쟁도 피해갈 수 없다. 안티를 해결하는 스님의 방법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꼭 대응을 해야 할 때는 최대한 진심을 담아 겸손하게 글을 쓴다.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는 믿음에서다.

“인터넷에서는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교감이 잘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의 급한 성정을 나무랄 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인터넷이 그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은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계획했다. 불교인재개발원이 진행하는 ‘무비 스님 초청 <서장(書狀)> 강의’를 맡았기 때문이다. 10개월간 한 달에 한 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서장>의 가르침을 전한다. 6월 20일이 첫 강의다.

“<서장>은 대혜 선사가 편지로 송대(宋代) 사대부들에게 선의 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이 시대의 사대부들에게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달 동안 잉태해 선(禪) 동자를 탄생시킨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입니다.”

간화선 지침서인 <서장> 강의를 앞두고 스님은 ‘간화선만이 유일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참선해서 깨달은 사람은 없다. 경전 봐서 깨달은 사람은 많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육조 스님이나 혜가 스님도 경전을 보다 깨달으셨습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음성교체(音聲敎體), 즉 말이 교화의 본체라고 합니다. 깨닫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선각(先覺)들은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禪)은 무엇일까? 스님은 ‘선은 생활’이라고 말한다. 선은 불가(佛家)의 다양한 생활방식 중 하나이므로,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배우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스님은 이 시대의 불교는 ‘인간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 그대로가 부처라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활동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도 다 부처냐’고 되묻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도 모두 다 부처입니다. 부처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위대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위대하다, 복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대인들만큼 풍요로웠습니까?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여래의 덕상(德相)을 갖추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법문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돋아나는 욕심을 버리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불교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라면 대다수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자 하지만, 그것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또 완전히 버리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존 불교의 해결책은 ‘돌로써 풀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풀이 자라지 않겠지만, 뿌리가 죽지 않아 언젠가는 조그만 틈이라도 비집고 올라옵니다. 욕심이라는 것도 억누르면 잠재워지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인간불교’입니다. 사람이 부처라는 것, 존재의 본질은 더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면 인연 따라, 세월 따라 저절로 욕심이라는 업(業)이 녹아납니다. 그 도리를 알면 최소한 부당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월을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의 제일 큰 ‘욕심’이라 할 건강에 대해 스님은 욕심을 버리고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한다.

“하루 1시간은 자신의 건강에 공(攻)을 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한창 때는 그 시간에 책이나 한 줄 더 보자, 건강은 나빠지면 그때 챙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흔한 말이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기자를 배웅하던 스님은 염화실 앞뜰의 커다란 소나무를 가리킨다.

“나무가 저렇게 큰 데도 매년 자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나무는 말없이 일러줍니다.”

부산/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공부한 것’ 나누기 위해 인터넷 카페 ‘염화실’ 열고 전법
“현대인 반응 즉각적…급한 성정 나무라지 말고 활용해야”
바람직한 삶 살기 위해 기다릴줄 아는 ‘인간불교’ 강조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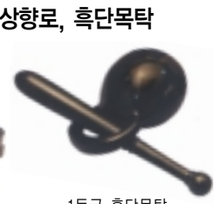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함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만공 스님(1)

학인, 佛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공, 네 눈 앞에 있느니라

어떤 학인이 만공(滿空;1871~1946) 선사에게 물었다.

"불법(佛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눈앞에 있느니라."

"눈앞에 있다면 왜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느니라."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하느니라."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말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진리는 항상 눈앞에 있다. 불법은 지금 코앞에 있다. 그것은 언제나 없는 곳이 없다. 선사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면 눈에 가득한 그대로가 불국토라고 말한다. 천태덕소 스님은 "마음 밖에는 법이 없으니(心外無法), 눈에 가득 온통 푸른 산이네(滿目靑山)" 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촉목보리(觸目菩提: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깨달음)', '촉사이진(觸事而眞: 손에 닿는 것 그대로가 진실)', '도무소부재(道無所不在: 도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말들이 이런 진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뜬 만공 스님 역시 '불법이 네 눈앞에 있다'고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촉목보리(觸目菩提)의 도리를 깨달으면 사바세계에서도 극락의 삶을 보고 즐길 것이요, 깨닫지 못한다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으로 평생 캄캄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만공 스님은 불법이 눈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나(我)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고 일러주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라고 애지중지하며 사랑해 온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인 아집(我執)과 아상(我相)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가르침이다. 더구나 이 '나'에 대한 집착 위에다 '너'를 포함한 객관적 사물과 현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알고 집착하는 법집(法執)까지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나'라는 아집·아상을 버려야 눈 앞의 '진리' 깨달을 수 있어

숭산 스님은 '보는 자가 여래다(卽見如來)'라는 주제의 법문에서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허한(텅빈) 마음을 유지하면 볼 때, 들을 때, 냄새맡을 때, 맛볼 때, 만질 때, 너와 모든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만물은 언제나 하나이다. 하늘을 볼 때 하늘과 하나이다. 설탕을 맛볼 때 설탕과 하나이다. 소가 '음메'하고 하면 바로 그 때 소와 하나이다." <선의 나침반> 숭산 스님은 본성(本性)을 깨닫는 길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나'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면 볼 수 있을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한 생각을 일으켜 자기를 찾으면 곳곳에서 그르칠 것이다"는 고인들의 말이 있다. 보려면 순간에 볼 것이요, 한 순간이라도 머뭇거리면 빗나가고 만다(動念卽乖)는 것이다. 만공 스님 입적 후에 문도회에서 출간한 법어집 제목이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듯 하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는 과연 무엇일까?

김성우 객원기자

30여 년 흔들림 없이 '철야정진'

居士禪의 리더들 ④ 청봉 **정근호** (서울 성북동 길상사 사무장)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림선원(조실 묵산 스님). 이 절의 선방에서는 매주 토요일 20여 불자들이 어김없이 밤을 꼬박 새우며 정진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1965년 창립된 보림회(www.borim.co.kr)가 이렇게 매 주말 철야정진과 여름·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해온 지는 어언 34년. 올해는 서울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제67회 하계철야 정진법회가 열린다.

한국의 유마 거사로 존경받았던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제자들의 모임인 보림회가 스승의 입적 후에도 중단없이 용맹정진을 이어 온 것은 청봉 전근홍(56 · 사진) 거사의 드러나지 않은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보림회의 철야정진은 백봉 거사가 '무자' 화두를 타파하여 확철대오 한 후 재가 수행자를 개오(開悟)시키는 방편으로 주말 및 일주일~열흘씩의 철야정진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74년 여름 철야정진때부터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백봉 거사는 85년 여름 23회까지 직접 제자들을 지도했으며, 입적한 이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그는 철야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함께 설법을 통해 제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공부인을 양성했던 것이다.

청봉 거사 역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74년 1주일 용맹정진을 시작으로 철야정진을 계속한 결과 77년 여름 철야정진, 82년 동계 철야정진에서 각각 체험을 얻고 득력(得力)함으로써, 철야정진의 중요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철야정진 통해 화두 타파·법열 체험

청봉 거사가 처음 선(禪)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것은 74년 여름 철야정진 때였다. 하지만,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은 77년 여름 철야정진 때였다. 당시 선방에 시계가 있었는데 참선을 시작해서 1~2분만 지나면 시계소리 조차 들리지 않고 오직 화두만 들렸다. 그러자 어느 순간 화두가 딱 끊어지면서 어떠한 실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의 심경을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마치 포항제철 같은 커다란 공장에서 엄청나게 큰 기계들이 돌아가고 그 소음에 사람말소리 조차 들을 수 없다가, 정전으로 갑자기 기계가 딱 멈췄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적적함이라 할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누구나 1초도 안 쉬고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한동안 멍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스승으로부터 받은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 동산이 물 위를 간다)' 화두의 답이 저절로 나왔다. 무엇이라고 표현할까 생각할 필요 조차 없었다. 마치 정해진 답처럼 거침없이 생각이 나서 종이에 적었다.

"예리한 칼을 들고 좇고 좇을 새, 갈 곳 없는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 내 집안 소식을 토하는구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 할 일도 많았던 내 집안 일이 하나도 할 일 없는 그대로구나."

백봉 거사는 이 글을 읽어 보고 고개를 끄덕 끄덕 하더니 설법시간이 시작되자 대중들 앞에서 글을 읽어 주고는 "전군(청봉)이 화두를 깼다"고 말했다.

청봉 거사는 82년 동계 철야정진 때도 다시 한번 법열(法悅)을 체험한다. 이때 백봉 거사는 공겁인(空劫人: 불생불멸하는 본래 면목을 상징)에 대한 설법을 하였는데, 어느 때와는 달리 자신이 바로 공겁인이라는 실감이 절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공겁인의 분상에서 공겁사(空劫事)를 굴린다는 이 도리만 안다면 앞으로 나흘 동안 춤밖에 출 것이 없어."

스승의 이런 법문을 들으며 느낀 청봉 거사의 법열은 처음 화두를 깼을 때와 또 달랐다. 적적하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쭈욱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자 백봉 거사는 도반들에게 "전군이 설법을 할 수 있는데, 장가도 안 간 총각이 말이야" 하고 웃었다. 스승은 청봉의 77년 화두 타파에 이어 82년의 체험까지 인정한 것이다.



청봉 정근호 거사(앞에서 두번째)와 함께 철야정진을 놓지 않는 보림회 식구들.

백봉 거사의 '새말귀' 가풍 이어

참선 수행자에게 화두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요 방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4시간 내내 공부를 지어 갈 수 있는 스님들과는 달리 거사들이 화두를 순일하게 가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가자들은 기존의 화두(말귀: 우리말 표현)로서는 순일하게 화두를 들기 어렵기에 백봉 거사는 새로운 화두인 '새말귀(新話頭의 우리말 표현)'로서 한결같이 공부를 지어 나갈 수 있는 거사풍(居士風)을 내세웠다. 즉, 이전의 화두가 먼저 의심을 하고 들어간다면 '새말귀'는 설법을 통해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이 몸뚱어리 자체에 성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法身)이 성품이 없는 색신(色身)을 통해 항상 굴린다(쓴다)는 사실을 알아서 곧바로 믿고 들어가 실천하는 화두법인 것이다.

청봉 거사는 일상 속에서 새말귀 화두로 공부하는 예를 이렇게 설명한다.

"운전수인 경우 운전을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손을 시켜서 운전을 한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 주의를 잘 살피며 운전을 잘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대로 새말귀를 지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응용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대로가 모두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봉 거사는 '새말귀'는 화두 타파 이후의 보임(保任: 중생의 오랜 습기를 제거하고 깨침을 누리고 쓰는 공부) 공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옛 성현들도 견성을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오후(悟後) 공부과정에서 성태(聖胎)를 길렀다는 것이다.

스승 유고 8년만에 완간 작업

스승의 입적 후, 청봉 거사는 도반들이 각자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 법문 테이프 3백여 개를 모두 모았다. 또 스승이 탈고한 인쇄되지 않은 <선문염송> 원고 10권부터 15권을 추가해 8년만에 완간하였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면 한 번도 빠짐 없이 직접 죽비를 들고 주말 철야정진을 이끌고 있다. 낮에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의 사무장 소임을 보면서 밤이면 스승의 유고(遺稿) 출판 작업과 참선으로 쉴 틈이 없는 청봉 거사. 한없이 겸허하고 부지런한 그를 만나 본 사람들은, 세간에 사는 수행자가 어떻게 하심(下心)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공부해야 할 지를 저절로 본받게 될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염화미소 선수련회**=강화 연등국제선원은 6월 29일~7월 20일 '염화미소 선 수련회'를 연다. 영국인 출신 센넨 스님이 입승 스님으로 참여하며 하루 10시간 동안 좌선, 경행하는 정진 프로그램이다. (032)937-7033

●**선우회 철야정진**=화계사 선우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 30분까지 국제선원에서 참선 철야정진 법회를 연다. 선우회 권유리심 회장의 지도로 108배 및 예불, 참선, 개인 점검 등을 실시한다. (02)900-4326

●**차명상 수련회**=김천 직지사는 6월 23~24일 제3회 차명상 수련회를 연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차명상, 걷기명상, 음식명상, 일상생활 명상 등을 수행. (054)436-6174

●**마음경영 명상**=서울 구로동 명상센터는 6월 22~24일(금 오후 6시30분~10시30분, 토 · 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마음경영 입문과정을 개설한다. 사마타와 위빠사나 이론 강좌 병행. (02)2082-1779

佛心 **성불화**

만트라 ㉶ 출시!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기능성신발 전문제조업체인 (주)롱스마일에서 만든 만트라 성불화 신발은 신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두 번을 놀란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래고 두 번째는 오래 걷고 등산이나 산행을 하여도 발이 아프거나 피곤하지 않는 것에 감탄한다. 요즘 중국산 저가 신발을 신고 발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오랜 기간 발과 신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온 롱스마일사는 신발 내부는 푹신하면서도 발의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줘야 하고 아치와 용천을 받쳐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캐쥬얼, 여행, 운동, 산행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과 모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최고다. 가격 98,000원



■만트라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용천과 아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밑창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몸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신발내부구조
-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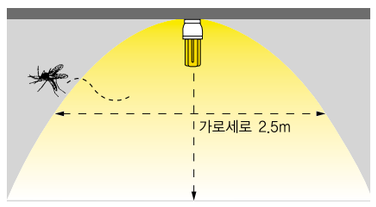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모기, 깔다구, 날벌레 꼼짝마!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는가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는 손님받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비젼전자에서는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끼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3~4m에는 야간 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공원, 사찰,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가격은 20W는 22,000원, 45W는 48,000원에 특별보급하고 있다.



[모기퇴치 범위]

●**사용장소** : 사찰, 공원,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현관, 거실, 아이방, 놀이방, 도서관 등

파리박멸 파리가 많은 곳에 놔두기만 하면 끝!
세계 70개국 수출!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로 유인!



파리잡는 파리왕(스텐드형)
350㎜×330㎜×240㎜

봄이 되면 번식하고 무더운 여름엔 어김없이 찾아와 괴롭히는 파리들… 파리약을 뿌리자니 냄새나고 뿌린 자리에 미끄덩하게 흔적이 남아 있어 불편하고 끈끈이를 붙여 놓으면 외관상 보기싫어 너무 고민되는 얄미운 파리!!

한 · 중 합작으로 세계특허를 받아 70여개국에 수출하는 파리잡는 '파리왕'은 파리가 좋아하는 냄새로 유인해 집전판으로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해 그 속에서 죽는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소 · 돼지를 키우는 축사, 우사 등에 꼭 필요하며 전원주택, 손님이 드나드는 식당에서도 '파리왕'은 필수!! 또한 명절이나 여름휴가때, 손자손녀들이나 가족 친지들이 때마다 모이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선물하면 아주 좋다. 농협, 축협, 관납 히트상품이며 15~20평형으로 132,000원이다.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구입문의 080-307-3070

옻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서울대 임상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나’ 아닌 ‘너’의 마음이 되어…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⑮ ‘마음 높이’ 맞추기

모범생 아들의 반항

얼마 전까지 P씨는 아들만 생각하면 뿌듯했다. 공부를 잘 하는 아들이 소위 일류대를 가는 것은 정해놓은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들은 때로는 주말이나 방학에 놀고 싶어 했지만 P씨는 거의 허락한 적이 없다.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만이 최고다” 하면서 오직 공부만 끊임없이 강요했다. 다행히 성격이 유순한 아들은 힘들어 하면서도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잘 따라와 주었다. 가끔 잠이 부족하여 힘없이 가방을 들고 나서는 아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다.

주위의 엄마들이 “얼마나 좋으세요.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하니 정말 부럽네요”할 때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행복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 아들은 전교 상위권에 들어요”하고 자랑하였다. P씨는 마치 자신이 공부를 잘 하고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우쭐하고 기뻤다. ‘우리 아들은 정말 효자다’ 하면서 흐뭇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P씨의 가슴을 무너뜨린 일이 일어났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 방에 들어가며 “얘, 지금 몇 신지 아니? 어서 나와야지” 라고 야단쳤다.

그래도 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P씨가 이불을 걷자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난 죽고 싶어! 학교에 안가!”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이 애가 내 아들이 맞는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순간 아들은 과일 칼로 자해를 했고 어떻게 병원에 데려갔는지 악몽과 같았다.

그 후 아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버렸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죽고 싶다고 하면서 밥도 거의 먹지 않기 시작했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다가가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면 생전 해 본적이 없는 욕설을 하거나 자해하려 하

> **전교 상위권 다투는 모범생 아들**
> **부모 공부 강요 반발 자해까지…**
> **뒤늦게 아들 마음 헤아린 어머니**
> **가슴으로 아들의 고통 껴안아…**

기 때문에 놔두는 수밖에 없었다.

P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 엄마한테는 내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 이제 지긋지긋해. 죽고 싶어!”하는 말들이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견딜 수가 없어 스님에게 아들 문제를 털어놓았다. 스님은 “보살님 다른 생각 말고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법당에 가서 아들의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들이 되어 그 마음만 헤아려 보십시오” 라고 하셨다.

법당에서 깊이 마음을 모아 아들의 마음이 되어보았다. 어린 나이 때부터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말 놀고 싶고 친구들과 장난하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럴 때 얼마나 야단쳤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부에 짓눌렸다는 말이 맞았다. 몇 시간을 법당에서 한없이 울었다. 왜 한 번도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미어졌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돼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간 P씨는 아들 방으로 들어가 말없이 아들을 안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해,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니”하는 흐느낌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묵묵히 있던 아들도 같이 울기 시작했다. 함께 붙들고 우는 동안 보살님은 마음의 막혔던 부분이 터지면서 아들에 대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깊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P씨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입장이 되어 보는 둘 아닌 마음이 부족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도 혹시 나의 기준과 잣대로 주위 사람들을 기대하고 평가하거나 나아가 내 생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높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둘 아닌 마음의 높이 맞추기가 아닐까.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산행게시판

●수효사 효림원 ‘아름다운 이별여행을 위한 준비교육’=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 제6기 호스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아름다운 이별여행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호스피스 교육은 ‘호스피스의 개념과 이해’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과 이해’ ‘말기환자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케어’ ‘감염예방과 안전수칙’ ‘의사소통(화해와 용서)죽음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 ‘장례의 실제’ ‘사별가족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7월 9일 개강하는 제6기 호스피스 교육은 8월 13일까지 수효사 효림원 6층 강의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열린다. 수강료 5만원, 50명 모집 계획이다. (02)313-5124

●관자재교육원 부처님점안법회=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가 관자재병원 내에 관자재교육원을 건립했다. 6월 24일 우룡 스님을 초청해 관자재교육원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오전 10시 청원 정토마을 관자재병원에서 열린다. (043)298-2258

●대흥사 가족과 함께 하는 산사체험=해남 대흥사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모집인원은 6가족, 30명 내외. 8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회는 6월 27~30일 열린다. (061)535-5775

●금산사 어린이 캠프=김제 금산사는 7월 27~29일 열리는 어린이캠프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10~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리는 금산사 어린이 캠프는 금산사 홈페이지(sansa.geumsansa.org)에서 접수 신청을 받는다. (010)6589-0108

●미황사 어린이 한문학당= 해남 미황사 어린이 한문학당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9일, 8월 8일 2차에 걸쳐 각각 1주일간 진행될 어린이한문학당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50명. (061) 533-3521

부처님 감사합니다

보고픈 어머니께 (하)

전우경 무안교도소

너무나 많은 죄를 부모님께 범해 해가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뼈아프게 가슴에 저려옵니다. 저 하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아니 당신께서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셨습니다. 사랑과 정이 무엇인지….

즐거워야 할 명절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 한 곳에 대못으로 박힌 못난 자식을 위해 지금도 따뜻한 쌀밥을 따로 담아 두시는 어머니.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실 우리 어머니께 이제야 용서를 빕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용서를 빕니다. 어머니가 찾아오실 때마다 절규하시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어느 날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작은 창문 틈 사이로 내미시며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야! 네가 기운을 내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 힘을 내거라”하시며 “네가 있는 한 우리 가족 모두는 죄인이다”하시며 오열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십 년은 더 늙어 보이시는 것 같아 너무나 참담한 슬픔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림: 문병성

> **불효자식 죄 씻으려 부처님께 귀의**
> **새벽 ‘법화경’ 독송과 108배로 참회…**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 속절없이 죽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도 살아갈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만나기 어렵다는 부처님 법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의 바른 지혜를 배우고 참회하며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 남은 인생을 좀 더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을 더욱 알차게 배우고 익히면서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끔 보살펴주신 것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혹시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마운 그분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암담하고 깜깜하기만 하던 터널의 끝이 지나고 찬란한 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명 속에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밝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웃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찬란한 당신의 얼굴이 내 작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 희망의 얼굴이요, 내 마음의 얼굴입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이 죄 많은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저 때문에 어머니 더 늙으심이 서러워 세월 가길 조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죄 씻고자 부처님께 귀의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이곳 불교교실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거한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법화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불한 뒤 아침 108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고 희망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마주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입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목 놓아 부르며 제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나마 닦아 내려고 노력합니다. 가슴에 뭉친 한이 조금씩 부처님의 가피아래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웃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향집 별빛 내리는 창가에서 제가 있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애를 태우고 계실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두 손 모아 발원하옵니다.

시방삼세에 늘 상주하옵시는 부처님! 부디 제가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아서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꽃피우는 연꽃처럼 저 자신도 다시는 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 보다 더 불우한 내 이웃을 도우면서 해 맑은 모습으로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연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주위에서 항상 지켜보며 격려하고 이끌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늘 함께 하시고 저의 이웃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들의 가슴에도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보살핌이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의 한 몸이 바쳐져서 타오르는 향불처럼 온갖 더러움을 사그라지게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쳐서 밝은 세상 불국정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발원하며 하루하루를 참회하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영원히 사랑합니다. (끝)

충청매일 · 옥천 대성사 주최 ‘수용자 효 문학작품’ 공모 효 편지 우수상 수상작

티베트 명상음악회

티베트에서 불법수행을 원만 성취하신 분의 강력한 가피력과 상서로운 능력이 깃들어 있는 다라니와 음률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명상음악을 통해

심신이 편안한 선정 상태로 빠르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정무위의 경계에 들어가서 번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며 빛나는 선(禪)의 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가피력으로 심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만날 수 있으며, 마음에 느끼어 깨닫는 (感悟)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일 시 : 2007년 6월 23일(토요일) 오후 3시 ~ 5시 30분]

◈장 소 : 조계사內 문화예술공연장 (서울 종로구 견지동 27-11)
◈문의처 : 02)586-6176 / 017-358-8830 / 011-714-8673

제 25기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내가 죽음에 직면하도록 돕는데 만족을 느끼며, 나의 요구를 이해하는,
민감하고 지각있는 사람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스피스 윤리 중에서-

■ 일 정 : 2007년 8월 4일(토요일) ~ 2007년 8월 11일(토요일)
■ 내 용 : 30개 호스피스 전문과목과 20여명의 최고 강사진. 임상과 이론을 겸한 전문인력양성 집중교육
■ 장 소 : 관자재병원 교육원 마하보디센터(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 대 상 : - 스님,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남 · 여 60명
■ 교 육 비 : 39만원(학인스님 20%할인 - 재학증명서 제출)
■ 원서접수 : 홈페이지 접수, 전화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접수받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육생 선발은 1차 서류 심사후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원서마감 : 2007년 7월 10일 도착분까지
■ 문 의 처 : 정토마을 호스피스[[법인사무국]]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 정토마을
TEL 043)298-2258(代)
FAX 034)298-1457

관자재요양병원 사무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64-1007(代)
FAX 052)264-0209

※ 불교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각계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교의료복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첨단 시설을 갖춘
관자재병원 교육원 마하보디센터가 새롭게 개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http://jungtoh.com / 이메일 jongtoh2@jungtoh.com
다음카페 불교호스피스연합 http://cafe.daum.net/BHU
정토마을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호스피스는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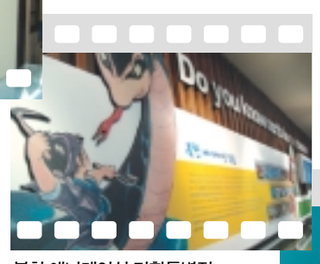
"와~우, 로봇이 움직일것 같아요"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1만여 점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 빼곡
3D 영상, 실제 상황 체험하는 듯 실감
소리 체험실 · 북한 특별전 등도 마련


복원된 만화가게.


북한 애니메이션 기획특별전.

우리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어른들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똑같이 놓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화는 어린 아이들이나 즐기는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만화를 보다 들켜 꾸지람을 듣는 일도 왕왕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애니메이션=만화'라는 공식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 편견을 씻어내고 애니메이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춘천으로 떠나보자. 1만점 이상의 애니메이션 자료를 보유한 애니메이션박물관이 기다리고 있다.

6월 9일 찾은 애니메이션박물관은 춘천 시가지와는 약간 떨어진 서면에 자리하고 있었다. 입구서부터 애니메이션박물관 다운 조형물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재밌는 캐릭터가 춘천시내 관광지도를 들고 있기도 하고 로봇 모양의 전시물이 잔디밭에 우뚝 서있기도 하다. 건물 자체도 '줌 렌즈' 모양이다.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그랜다이저'가 출동할 것만 같다.

애니메이션박물관은 철저히 이론과 체험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

1층에서는 애니메이션 역사와 만드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거기에다 직접 원통을 돌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꾸몄다. 또 초창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소품, 영사기, 필름 등도 전시되어 있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연진이(대구시 복현동 · 12)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앞으로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며 예비 애니메이터로서의 꿈을 한 걸음 더 키웠다.

어른들에게도 반가운 공간이 있다. 옛날 이용했던 만화가게의 모습을 복원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옛날 만화책들도 전시되어 있다. 의자도 있어 잠깐 쉬기도 좋다.

2층으로 향하면 각 나라 애니메이션의 특징과 캐릭터들을 전시해놓은 공간을 볼 수 있다. 또 그림자 · 핀스크린 애니메이션, 소리 체험실 등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3D애니메이션관과 애니메이션전용 극장까지 갖추고 있다. 3D애니메이션관은 특히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곳. 특수 안경을 쓰고 관람하면 영상 속으로 들어가 실제 상황을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단, 너무 어린 아이들은 화면을 보고 놀라서 우는 경우도 있으니 만 4세 정도는 되어야 즐길 수 있다.

현재 기획특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애니메이션 특별전 '령리한 너구리를 아십니까'도 주목할 만하다. 기획전 안내문을 본 한 어린이가 아빠에게 물었다.

"북한에도 애니메이션이 있어? 재미없겠다."

애니메이션박물관 한승태 큐레이터가 여기에 대해 설명한다.

"북한애니메이션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이 모두 선동적일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력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에요. 그렇다면 요즘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뽀롱뽀로로'가 남북한이 함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스톱모션애니메이션 체험.

북한 애니메이션은 분명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 온 애니메이션들에 비해 색감이 떨어진다. 하지만 제작기술은 오히려 우리 보다 앞서는 면도 있다. 또 다양한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왔다는 점도 새롭다. 그런 면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전시의 의도다.

관람 전에는 먼저 홈페이지(animationmuseum.com)에 들러보자. '교육'에 질문지와 학습자료집이 준비돼 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이다. 한 큐레이터는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잠시 들렀다 가면 놓치는 것이 많다"면서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느긋하게 관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기 중에 시간이 없다면 여름 방학을 이용해도 좋다. 방학 때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여름 캠프와 특별 전시도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극비 팁 한 가지! 가능한 가족단위로 찾아가자. 그러고서는 박물관에 "애니메이션박물관 설명 부탁드려요!"라고 요청하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사람과 친근한 동물을 주제로 한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 전'이 7월 8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감 있는 그림체로 어린이들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전시.(042)602-3200

남양주시 제2청사 강당에서는
'남양주시 청소년문화존 음악회 시리즈' 첫 번째인 '금관악기의 세계'가 펼쳐진다. 호른, 트럼펫 등의 악기 연주를 친절한 해설과 더불어 감상할 수 있다. 악단 스피릿 앙상블의 연주로 6월 23일 오후 5시 공연이며, 입장료는 무료.(02)496-4796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07년 첫 번째 기획특별전 '하늘이 내린 재상, 류성룡'을 7월 8일까지 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류성룡의 갑옷과 하회탈 전시, 이순신 장군 장검 등 흔히 보기 힘든 유물들이 전시된다. 또한 6월 23일 교육관에서는 안동 하회의 문화에 대한 특별강연도 있다.(02)2077-9275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는
진도 토요민속여행'이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진도 사람들이 지켜온 고유의 전통민요 · 민속을 중심으로 구성된 토요 민속여행공연은 찾아오시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민요 · 민속의 원형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61)540 - 3782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정감 있고 친근한 닥종이 인형으로 어릴 적 추억이나 익살스럽고 다양한 상황들을 재현하고 있는 각각의 테마 있는 작품들로 '바다와 어촌풍경 특별전'을 마련했다. 어촌모습을 닥종이로 꾸민 작품 40여점이 전시된 가운데 체험 공방을 통해 닥종이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다. (051)553-4944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법주사 2551(2007)년
여름수련회 수련생 모집

수련차수	기 간	인원	대 상
일반부 수련회 1차	7.14 ~ 7.17	50	일반부
일반부 수련회 2차	7.19 ~ 7.22	50	일반부
초등부 수련회	7.22 ~ 7.24	120	초등학생
가족부 수련회	7.27 ~ 7.29	70	가족수련회

❖장 소 : 속리산 법주사
❖수련회비 : 일반부 80,000원, 초등 · 가족부 50,000원
❖입금계좌 : 농협 403020-51-032293 법주사
❖접수기간 : 2007년 6월 10일부터
❖접 수 :
•일반부 : 법주사 포교국 ☎ 043)543-3615 FAX 043)543-3620
•초등 · 가족부 : 충북 파라미타 ☎ 043)224-5256
❖문 의 : http://www.beopjusa.or.kr / e메일 : para043@hanmail.net
❖우편접수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수련대회 담당자 앞

속리산 법주사 주지 도공 합장

※자원봉사자 모집 - 수련대회 참가경험이 있는 분으로 7월 1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사계절 단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망사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발건강 지압 샌들 풍산동 99% 장기간 보행시 발이 편안합니다 초극세사 원단 바이오실리콘
발볼조절가능 건강슬리퍼 바이오실리콘 초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9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회색, 검정
미끄럼 방지 (논스립 우레탄)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0,000원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0mm 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수업시간에 "여러분, 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해 보세요"라고 말했더니 학생들이 "스물여덟요." "서른둘이요." "마흔 둘이요." 제각각 생각을 말하더군요. 그래서 스물여덟이라고 한 학생에게 "이따 아이스크림 하나 사 주마"했지요. 가만 생각해 보면,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가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가늠 : 1.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또는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 '매사가 다 그렇듯이 떡 반죽도 가늠을 알맞게 해야 빚기가 좋다' 2. 일이 되어 가는 모양이나 형편을 살펴서 짐작하는 것. '애초 주제와 분수를 가늠 못한 무모한 것이 차차 드러났던 거였다' (이문구<오자룡>)

가재걸음 : 1. 뒤로 걷는 모습. 2. 일이 더디고 진보하지 못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발림 : 1. 살살 발라맞추는 것. '발림으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2. 판소리에서 소리를 하면서 하는 가벼운 몸짓이나 팔짓 따위. 너름새라고도 하지요.

철 : 우리말에서 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절의 의미로 한 해를 네 시기로 나눈 중의 하나를 철이라 해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또 하나의 의미는 '철 좀 들어라' 할 때처럼 사리를 가릴 줄 아는 힘을 뜻하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사랑으로 감싸안은 바리공주의 '孝' 감동적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한국 고전 '바리공주'

우리 고전 '바리공주'를 오페라로 만들어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작품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길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전작품도 많이 읽어야 하죠. 부모님에 대한 바리공주의 효성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읽어 보세요.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삼백 석에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졌듯이 우리 고전엔 효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김만중은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자 <구운몽>, <사씨남정기>와 같은 소설을 써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렸다고 하죠.

삼나라의 오구 대왕은 무당이 말렸는데도 길대 부인을 왕비로 맞아 딸만 여섯을 낳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기도 딸이라고 하자 내다 버리라고 했다. 버려진 바리공주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성들여 길러 열다섯 살이 되었다. 그러나 그 때 왕과 왕비는 깊은 병에 걸렸다.

왕과 왕비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수를 구해올 사람이 없어 걱정할 때, 까치의 도움으로 바리공주는 왕과 왕비를 만나게 되었다.

약수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바리공주는 멀고 먼 길을 고생해 가면서 서천 서역국까지 갔다. 다시 그 곳에서 9년간 고생을 하여 마침내 신선에게 약수 두 방울을 얻어 왔다. 막 숨을 거둔 왕과 왕비를 약수로 살려내고, 바리공주는 다시 서천 서역국으로 가서 죽은 사람들의 넋을 서천 서역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

이상이 바리공주 이야기의 개요에요. 책을 읽을 때 등장하는 인물을 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커요. 오구 대왕은 아들이 아니라고 자신의 자식을 내쫓는 것으로 보아 냉정하고 인정이 없지요. 남녀 차별이나 남아 선호사상이 들어있어 여성들이 씁쓸하겠지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른 사람이죠. 또한 나중에 후회할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해 버리는 것으로 보아 경솔하고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되어요.

길대 부인은 오구 대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을 버리지만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보아 마음씨가 곱고 착하지만 더 강한 여성상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바리공주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떠나 약수를 구해 오는 것으로 보아 효성이 지극하고 용감하지요. 여러분도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바리공주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씨를 가졌어요.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아 마음씨가 착하고 곱지요. 바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버려진 아이를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우는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죠.

오구대왕은 왜 그렇게 아들을 바랐을까요? 삼나라의 대를 잇기 위해서겠지요. 아들이 있어야 오구대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시대니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버려지지 않은 여섯 공주들은 왜 서천 서역국으로 약수를 구하러 가려하지 않았을까. 십년 넘게 버려져 지내다가 부모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십오 년 간 정성들여 키운 바리공주를 떠나보내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할까. 바리공주가 구해온 약수로 다시 살아난 오구 대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구하러 갔을 것이라는 답이 들리는 것 같네요. 섭섭하고 아쉬우나 한편 궁궐로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기쁘기도 했을 바리공덕 할머니의 마음을 전해오는 학생도 있네요. 바리공주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먼저 앞장 서 도와주고 해결해 나가듯.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위해 서천 서역국까지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나 약수를 구해 오듯. 부모님에 대한 나의 효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어떨까요?

남아 선호사상 바탕위에 용기있는 여성상 표현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엄마의 재혼 '싫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요즘 엄마가 재혼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 생각 때문에 공부도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엄마랑 둘이서 잘 살아왔는데, 왜 재혼하려는지 모르겠어요.
(ID:hongga17)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엄마와 참 사이좋은 딸인 것 같네요. 그러다보니 갑작스럽게 엄마의 행동이 달라지고 엄마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당황되고 왠지 엄마를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 같아서 싫은 감정도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뒤에 친구의 생각을 잘 살펴봐서 일단 엄마의 재혼 문제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보세요. 고등학생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친구의 입장을 엄마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해한 다음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머니도 그동안 혼자서 친구를 기르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신다고 말씀은 안하셔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힘든 일도 많으셨을 거고 그럴 때마다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으시고 오로지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시고자 입술을 깨물면서 노력해 오셨을 겁니다. 엄마도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엄마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엄마에게 친구의 생각을 전달해 보고 엄마의 마음은 어떠한지 들어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엄마와 함께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 보세요. **(한국청소년사이버상담실)**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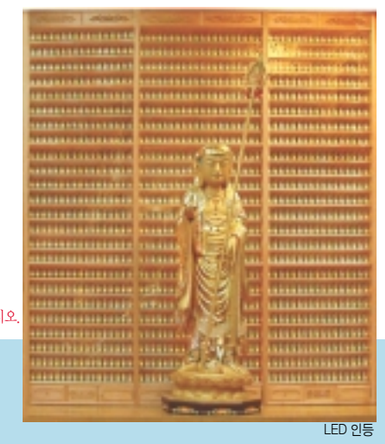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LED 인등


영구위패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순간'과 '영원' 넘나드는 '깨침의 詩語'

제1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작 '아득한 성자' 등 시 80여편 수록



그림:와이 · 사진제공:시와사학사

아득한 성자 오현 스님 시집 | 시학 펴냄| 1만원

"좋은 말을 하려면 입이 없어야 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없어야 한다"는 말로 제1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혔던 오현 스님(시조시인. 신흥사 회주 · 그림). 스님은 "좋은 말을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니 정지용 선생에게 누가될까 염려된다"며 수상을 부끄러워했었다.

제19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작은 '아득한 성자'. 전문은 이렇다.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볼것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까지 살았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김남조 시인은 심사평을 통해 "(하루살이의) 짧은 생애의 풍요로운 충족을 읊고 있어 충격적이고 시의 지평확대를 아니 지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론가 김재홍 교수(경희대)도 "이슬방울 하나에서 영원을 보고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읽어내는 구도적인 명상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근래 시단의 한 성과"라고 평했다.

오현 스님이 제19회 정지용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시집 <아득한 성자>를 냈다. 수상작 외에 80여 편의 근작들을 담았다. 구도자(시인)의 눈에 걸리는 우주의 모든 사물과 정황들이 시어를 통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힘은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부양해 준다.

자유시와 시조 산문시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5부로 나뉘어 실렸지만 모든 시편들이 구도와 깨침의 맥박으로 뛰고 있다.

고은 선생은 오현 스님의 시 세계를 '격외(格外)와 '의외(意外)'로 읽었다. "벽에 그림을 걸어 두었더니 그 그림이 살아나서 그린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게 되다니! 이 격외와 의외가 안개 자욱한 내설악 안개 걷히운 외설악을 아우르고 있다니!"라며 "과연 오현음(五絃吟)의 높이로다"고 경찬(慶讚)했다.

그러나 정작 오현 스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 버려야 할 사람이, 부처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까지 다 내다 버려야 할 놈이, 시를 쓰고 상을 탐하여 상을 타게 된 것이 낮꿈이 아니니 묵형(墨刑)을 받는 것 같다"며 "몸에 털이 나고 머리에 뿔이 돋는다"고 거듭 겸양을 내비친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수많은 지옥 중생 구제한 지장보살의 법문



지장경
원순 스님 지음
열린마음 펴냄 | 1만2000원

"내 이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상이 다하도록 죄를 짓고 고통받는 육도중생들을 위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해탈시키고 난 뒤에 서야 내 자신도 성불하리라."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하고 수많은 지옥 중생들을 보며 세운 이 원력은 중생들의 의지처가 돼오고 있다. 사찰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영가를 위해 지장보살을 부르며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재를 지내는 지장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신앙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장경>이다. 前 조계종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에서 어록을 강의하고 있는 원순 스님은 <지장경>을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옮겨 책으로 펴냈다.

원순 스님은 "불자들이 <지장경>을 여러 번 반복해 읽다 보면 그 속에 담긴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크나큰 원력에 감동받아 저절로 복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흔히들 지장보살님을 영가천도를 위해 기도드리는 보살님으로만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장 보살님이 구제하고자 한 것은 지옥 중생만이 아니다. 세세생생 지은 업으로 현생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그 업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업을 짓지 않도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제도도 하신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3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4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5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6	염불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7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8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9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효림
10	길 찾아 길 떠나라	박원자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음미'하는 식습관으로 心身 건강하게



붓다의 밥상
카르멘 유엔 지음
강태헌 옮김
파피에 펴냄 | 1만2000원

'몸짱' '얼짱' '웰빙'과 '몸매 가꾸기'는 요즘 일상용어가 되었다. 각종 매스미디어는 앞을 다투어 미용과 몸매 가꾸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안테나를 바짝 세워 정보를 모은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다. 몸매를 아름답게 가꾼다고 건강한 것일까?

이 점에 대해 최근 출간된 <붓다의 밥상>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건강한 몸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점 때문이다.

이 책은 먼저, 바쁜 일상과 편리한 식품기술로 인해 생겨난 '즉석식품'에 길들여 져가는 우리의 식습관을 경계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몸과 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챙기기법'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실천 방법은 간단하다.

먹을 때 먹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당근 한 조각, 오렌지 한 개를 씹을 때 그 속에 녹아 있는 햇볕과 비, 바람 여기에 농부의 땀방울 등을 느끼면서 마음을 다해 먹거리를 음미하는 것이다.

저자는 솔직히 이 방법이 간단할 것 같지만 현대인은 '순간에 집중'하는 버릇이 돼 있지 않으므로 사실은 어렵다는 충고도 곁들인다.

하지만 저자는 음식을 먹을 때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을 치워 버리면 먹는데 집중할 수 있으며, 적게 먹더라도 포만감을 느껴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다.

평범한 방법이라 다소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자의 임상실험 효과를 믿고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다른 보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걸망 하나 달랑 메고 떠난… 무구 스님의 세계 여행기



진똥개똥
무구 스님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여행하는 사람마다 관광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지요. 하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세 군데는 꼭 가봐야 합니다. 첫째는 박물관이요, 둘째는 동물원, 마지막은 재래시장입니다."

경주 지장암 주지 무구 스님의 여행 원칙이다. 스님은 달랑 걸망하나 메고 운수납자의 모습으로러시아를 비롯해 북유럽, 남미, 그랜드캐넌, 아프리카 등을 여행했다. 그리고 그 여정과 견문, 감상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또한 스님은 세계 각국의 여행지에서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릴때마다 애피타이저인 적절한 속담을 써가며 글 읽는 맛을 돋워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백련잎에 청개구리



얼굴에 분 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학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활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 쓰고 난 후 갈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녀가
예행연습 없이 굿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필휘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읽히는시!!



철정무구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험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와야만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은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견불사 주지로 계시면서 오늘도 한결같
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세지를 전한다.

정심보덕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055)962-3931 / Fax 055)962-3920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붓다붓 (www.buddhabook.co.kr)

‘무엇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이

바로 ‘자비’ 입니다

니르바나 테마연주 다섯 번째

‘원성 스님과 함께하는 자연동화’


원성 스님.





니르바나오케스트라 연주 장면(왼쪽)과 원성스님이 무대 앞 스크린에 나오는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동승’의 작가 원성 스님이 영국서 돌아왔다. 1년만이다. 귀국하자마자 음악회 무대에 섰다. 6월 14일 서울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열린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다섯 번째 연주회 강사로 나섰다.

이번 연주회의 테마는 ‘원성 스님과 함께하는 자연동화’다. 원성 스님의 인기는 웬만한 인기연예인 뺨칠 정도다. 음악회 시작전 김영목(7) 어린이와 장명숙 보살(52)은 팜플릿을 들고 원성 스님에게 사인을 요청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음악회는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1악장 연주로 시작됐다. 이어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진행으로 원성 스님과 대담이 이뤄졌다.

원성 스님은 지난해 출간된 저서 <꽃비>에 사용됐던 삽화를 하나씩 스크린에 소개하며 설명 했다. 이날 스님은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 했다. ‘자연’, ‘천진불’, 그리고 ‘사랑’이었다.

“<꽃비>는 자연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요정의 나라 왕자였던 코코가 등장하지요. 인간들이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그 소중함을 잃고 사는게 안타까워 일부러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코코를 통해 꽃과 나무, 동물, 바람과 같은 자연에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되새겨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라며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동물보호에 대한 자신의 감동 깊은 일화도 들려줬다. “3년 전 전시회 때문에 시내로 나가는데 버스를 타고가다 개가 차에 치여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얼른 버스기사보고 내려달라고 해서 그 개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기억을 되새기는 스님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잠시 숙연해진 분위기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종달새’ 1악장 연주로 다시 밝아졌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선율은 금방 청중들의 무거운 가슴을 쓸어 내려 주었다.

두 번째 주제는 ‘천진불’. 무대 중앙에는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동자승 그림이 등장했다. 이 그림을 보자 김상영 교수가 “스님이랑 그림의 동승들이 많이 닮았네요.”라고 하자 원성 스님은 “이젠 제가 너무 늙어버렸어요.”라고 대답해 객석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

“순수하고 천진스런 동자승들의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동자승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고 맑은 어릴적 본성을 되새겨 재발심 한다면 누구나 천진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무대에는 천진불들이 나란히 등장했다. 은석초등학교 3년 김지현 · 김지영 양이 ‘내마음에는’ ‘노란민들레’ 등 네 곡을 선사했다. 특히 원성 스님은 자신이 노랫말을 만든 ‘청솔아래서’가 음성공양 될 때는 가사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공연의 열기는 뜨거웠다. 예정된 1시간 30분이 훌쩍지났지만 원성 스님은 세 번째 주제인 ‘사랑’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속인들과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한 사랑을 주로 하지요. 예를 들면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등등.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똑같이 사랑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즉 ‘자비’입니다.” 객석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연주회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가곡 ‘사랑’ 등 사랑을 주제로 한 음악들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연주회장에서 만난 김경옥 보살(43)은 “감동적이고 가슴 한 편으로 무엇인가 따뜻함이 전해오는 음악회였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자비를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원성 스님은 7월 14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삽화 소개하며 자연 · 천진불 · 사랑 주제로 이야기
직접 작사한 ‘청솔 아래서’ 찬불가 따라 부르기도
7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시회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연주 통한 명상 체험

티베트명상 음악회/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서

보리선원(원장 각성 스님)은 6월 2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티베트 명상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는 티베트에서 18년간 수행한 금보리 대사가 ‘반야밀주’를 독송하는 순서로 시작한다. 이어 각성 스님이 인도의 파드마삼바바(연꽃에서 태어난 자) 대사가 가르친 ‘연화생대사 심주 다라니’ 연주를 통해 명상을 체험하게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금보리 대사의 ‘천음’도 이번 연주회에서 주목해 들을 만하다.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깃들어져 있는 이 ‘천음’은 듣는이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며, 동시에 몸의 경락을 풀어 피와 기가 잘 통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신이 편안한 선정 상태로 빠르게 들어가게 도와주는 수행법인 ‘보리청정관상법’도 각성 스님에 의해 소개된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⑫

새천년 위한 불교음악제 열려

운문 스님 작사 오페라 ‘아미타불’ 초연
(사)불교음악협회 창단, 반영규씨가 회장

90년대 후반

그 만남이 있은 후 준비위원회 모임을 계속 갖고 불교음악들인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참여를 권했다. 김동환 정부기 길일섭 교수, 김희조 이인원 조영근 황학현 최영철 홍도후 씨, 정덕 대운 효경 스님, 홍윤식 학장 김순임 회장 등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 한국불교음악협회는 1999년 10월 19일 새천년을 위한 불교음악제를 열었다.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열린 이 음악회에는 운문 스님이 작사를, 정부기교수가 작곡한 오페라 ‘아미타불’을 불교음악계 최초로 무대에 올렸다.

이 불교음악제는 사)한국불교음악협회의 준비 모임으로 불교음악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었다. 음악회는 큰 문제없이 끝났으나 진행에는 장애가 많았다. 첫 번째는 이인원 씨가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인 박범훈 교수가 “국립국악관현악단과는 상관 없는 일이므로 지휘를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그래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있던 홍도후씨의 권유로 결국 이인원씨가 지휘를 맞게 됐다. 그런데 홍 악장에게 김희경 씨가 “이번 음악회를 조계종 총무원에서 못하게 해 음악회가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날도 연합합창단은 연습에 열중이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연주회 취소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과 책임을 김희경 씨에게 문고자 했으나 김 씨의 지도 교수가 참여하는 연주회인데 하면서 합창단장들과 준비위원회에서 그냥 묻어 두고 가자고 했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운문스님의 불교음악 40년 역사가 담긴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음악회를 마치고 난 후 한국불교음악협회 정관도 만들었고, 불교음악인들의 마음도 모아져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등록도 할 참이었다. 그때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김석오 과장은 “박범훈 교수와 반영규 김희경 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조금 만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계 문화담당 기자가 ‘사)불교음악협회’가 설립됐다고 전했다. 회장을 반영규 씨가 맡아 사)불교음악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설립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준비위원들은 어이가 없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니 국회정각회에서 근무했던 이상곤씨의 도움을 받아 법인 등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박범훈 교수를 찾아갔다. 박교수는 “협회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이 협회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2000년 4월 12일에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기념 연주회를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갖고 사)삼보불교음악협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⑮

지리산 봉천암

장인성 시인

화엄사 뒷마당 그늘 속에는
산새들이 파놓은 옹달샘이 있는데요.
울다 울다 지쳐서 목이 잠긴 새들이
포르르 날아와 목을 축이고
반야심경 한 소절씩 외우고 가는 옹달샘
하나가 그늘 속에 있는데요.


봉천암(鳳泉庵)-화엄사 뒤편에 있는 부속암자. 봉천수라 이름한 석간수를 마시면 목이 툭 터지는 시원함을 느낀다. 그림 : 이상배 화백

웰빙 가구의 대명사 - 다심마루

茶心마루 공장직판 도매가세일

다 심

자연의 향기와 숨결로 심신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소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쓰면 쓸수록 품격을 더해가는 좌탁입니다.


찻상 (mm)
660x425x200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 소재 : 우리나라 소나무 사용
▶ 사용 :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
(예) 차탁, 거실의 좌탁,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손님상 등
▶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골동을 만들어가는 과정 - 대물림이 가능)

※ 중국산과 무늬목 좌탁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서리

측면

나뭇결

※ 겨울에 수축하고 여름에 팽창하는
살아 숨쉬는 소나무 좌탁입니다.
(무늬목을 입힌 좌탁은 수축 팽창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좌탁	1200x600x300(小)	400,000	190,000
	1300x770x300(中)	500,000	210,000
	1500x770x300(大)	600,000	260,000
	1800x770x300(특대)	700,000	310,000
찻상	660x425x200	160,000	80,000

전국 어디든지 배송하여 드립니다.

주문처 080-300-9928
농협 177483-51-071977 (예금주:천소현)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1. 마조의 심외무불(1)

바람이 거세니 나뭇잎이 자주지고
風驟葉頻落
산이 높으니 해가 쉽게 가리운다
山高日易沈
좌석 가운데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坐中人不見
창밖엔 뭉게뭉게 흰 구름 짙어라
窓外白雲深
–장령탁 <선문염송> 5권 159칙 '즉심'

어느 날 마조에게 한 학인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십니까?"(和尙爲什麼說卽心卽佛)

"우는 아기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지."(爲止小兒啼)

"울음이 그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하지."(非心非佛)

"그럼 이 두 가지 외에 사람이 와서 물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그런 사람에게는 물건도 아니라고 하지."(向伊道不是物)

"스님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에게 무상대도를 구현하라 하겠네."

마조도일은 능수능란한 반어적 기법 사용
부정 공격엔 '卽心卽佛' 긍정법으로 방어
긍정에 안주하면 '非心非佛' 부정법 사용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지금 자네의 뜻은 무엇인가?"(卽今是什麼意)

이어서 방온거사가 물었다.

"물은 뼈도 힘줄도 없이 만곡의 배를 이겨내는데, 그 이치는 어떤 것이지요?"

"여기는 물도 없고 배도 없다. 그런데 무슨 힘줄과 배를 말하는가?"

龐居士問 如水無筋骨能勝萬斛舟 此理如何 師云 這裏無水亦無舟 說什麼 筋骨

(<경덕전등록>제6권 '강서 도일선사')

앞 선화에서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이 긍정과 부정을 돌이키는, 얼마나 반어적인 기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장(師丈)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인을 제접 시, 이런 현 상태를 초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스승의 간절한 마음을 엿보게 된다. 이것은 6조가 말하는 이항대립적인 36대의 법문을 펼쳐 학인의 의심을 바로 일원적인 통일성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학인으로 하여금 양변견적인 모순을 벗어나 광명의 세계에 계합시킨다. 곧 자성의 세계에 영회시키고자 하는 스승이 휘두르는 진검을 보게 된다.

그리고 방온거사의 물음에 마조는 더 깊숙한 곳, 즉 자성의 본체에는 '있다/없다'가 모두 공함을 드러낸다. 진실로 언설을 떠나고(離言說) 사유가 끊기는(絶思量) 반야가 자발광(自發光) 하는 곳이다. 모두의 장령탁 게송은 이 선화를 밝힌 후대 선객의 노래다.

1행과 2행은 마음의 운행을 나타내는 구절. 마음의 운행이라 하여 특이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바람이 거세니 나뭇잎이 자주지고/산이 높으니 해가 쉽게 가린다" 이니 다름 아니라 자연이 저절로 풀어놓는 운행, 삶의 자연스러운 운행이 마음의 운행일 뿐이다. 이러할진데 3행과 같이 "좌석 가운데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는 당연하다. 눈을 눈동자가 보지 못하고, 불이 불동자를, 물이 물처녀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듯이 '좌석 가운데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이 보임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4행의 "창밖엔 뭉게뭉게 흰 그름 짙다"(窓外白雲深)이다. 그 외에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마조 도일은 우는 아이를 위해 즉심즉불(卽心卽佛)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 그리고 울음을 그친 아이, 스스로 편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을 위해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는 부정법을 휘두른다. 이는 6조의 법을 착실히 계승한 증거다. 바로 울음 우는 아이와 같이 부정으로 공격하면 즉심즉불이라는 긍정법으로 막아내고, 울음을 그친 아이와 같이 긍정에 안주한 사람에게는 비심비불과 같은 부정의 진검을 휘두른다.

앞 장령탁의 게송은 마조의 즉심즉불과 비심비불의 시적 형상화이며 마조의 심외무불(心外無佛), 그 자체에 대한 깨우침의 시이다.

※착어 : 즉심 비심 즉불 비불 고만고만하여 들을 만하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⑩

마음의 귀
박몽구 | 시와에세이 2006 | 8,000원





상업주의에 오염된 '삶의 정화'

박몽구는 1977년 월간 <대화>지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십자가의 꿈> <자끄린느 뒤프레와 함께> <개리카를 들으며> 등의 시집을 냈다. 그는 등단부터 현재까지 사실주의 방법을 고수해온 시인이다. 그는 수년전부터 시에 음악을 제재로 가져오거나 구체적 인물을 인유하여 상업적 자본주에 처한 자신의 심정을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찰 기행의 경험을 시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이 시집 3부에 '개심사의 까치밥' 등 11편의 시를 싣고 있으며, 수종사, 정취암, 서산 마애불, 선암사 등의 사찰이나 불교유적 방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인이 사찰을 찾는 것은 상업 자본주의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가 사찰을 순례하면서 쓴 시편들에서는 자아의 성찰과 함께 더러워진 세상살이를 정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편편한 아스팔트길 버렸을 때/비로소 겨울 억새에 가려진/암자로 가는 길 드러났다/해발 오백 미터 바위 위에 앉은 /산사로 닿는 지름길이/산등성이에 뱀처럼 걸려있지만/주지 수완 스님은 빠른 길을 버리고/세배나 먼 길로 돌아오라고 한다/

산사의 불빛은 먼 별처럼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산짐승들의 반가운 울음이 들리고서야/절 마당으로 닿는 한 가닥 길이/부끄러운 속살처럼 보일 듯 말듯 드러났다/

지름길 놔두고 굽이굽이 먼데로 에둘러/산사로 닿는 길 닦은 사정을 헤아리기 어렵다가/새벽 예불 때에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미명의 어둠 속에서/지천명 맞은 나는/ 당장 눈앞에 희망의 꾸러미 내놓으라는 /비원 앞에 난감해 하는 부처의 모습이/안쓰럽게 촛불 너머에 어려보였다/새벽 산바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일으켰다 – '정취암에 가서 4' 전문

초반부에는 정취암으로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현대 속도문명으로 은유되는 편편한 아스팔트 길을 버렸을 때 탈속으로 은유되는 암자로 가는 길이 드러났다고 한다.

거기에 수완이라는 실명의 스님을 통해 빠른 길을 버리고 먼길로 돌아오라고 했다며 현대의 속도 문명을 지적하고 있다. 2연에서 산사의 불빛이 먼 별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적 경험의 서술이면서 현대와 암자, 속세와 탈속세와의 거리를 암시하고 있다.

화자는 3, 4연에서 지름길, 빠른길이 아닌 먼 길을 에둘러 산사에 간 인식에 이른다. 새벽 예불 때 지천명을 맞은 화자가 부처님에게 당장 눈앞에 '희망의 꾸러미'를 내놓라고 하자, 이에 난감해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어리석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세상 만사가 빠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창작자의 시작 의도다.

박몽구는 선암사를 다시 찾아가서 동화작가 故 정채봉과의 기억을 되살리기도 한다.

이들은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선암사 낡은 서까래와 단청을 보며 흐린 눈이 맑아졌다고 한다.

몇 년 만에 선암사를 다시 찾았다
한창 알이 패기 시작한 청보리 줄기처럼 긴
산문에서 승선교에 이르는 길 더듬은 끝에
왕벚나무 향기 진동하는 절 마당에 서서
정채봉 선생과 생전에 함께 했던
기억의 갈피를 뒤적거려본다
세 시간 넘게 송광사 뒤쪽으로
조계산 자락에 올라
사람 래신 제비들이 옹기종기 둥지를 틀고
절집의 남은 서까래며 벗겨진 단청을 보며
우리는 흐린 눈이 맑아지는 순간을 맛보았다
– '선암사 왕벚나무 그늘' 부분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⑩두부김부침전



오늘은 맛도 영양도 좋은 두부를 이용한 요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두부가 전래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송나라와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두부는 주로 사찰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스님들은 두부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의 무덤 곁에는 사찰을 두어 두부를 만들고 제수(제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관리하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스님들의 단백질 공급원
치매 예방·항암 효과 등 영양 만점

두부는 다른 문화적 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친 뒤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두부 중에서 가장 맛있고 전통 있는 두부를 들자면 단연 고지시의 당인두부를 꼽는데, 이 당인두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임진왜란 때 납치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던 경주성장 박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통이 있고 영양가 또한 높은 우리나라 두부는 근래 들어 국제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두부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잔치상이나 제사상에나 오를 만큼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 함유된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사포닌(saponin)은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콩에는 인지질이 약 1~3%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기능 향상과 노인성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축적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연구가 활발한 대두 속의 이소플라본(Isoflavone)은 에스트로겐(estrogen)활성과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 많은 두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발달과 어른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 골다공증 예방 등에 좋아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두부김부침전은 북한의 사찰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음식입니다.



두부김부침전
재료 : 두부, 김, 깨소금, 녹말, 들깻잎, 소금

만드는 법
① 두부는 얇은 천에 싸서 물기를 약간만 제거하고 들깻잎은 다져놓는다.
②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두고 두부는 으깬 다음 다진 들깻잎과 깨소금, 소금을 넣어 섞는다.
③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을 한 장 올린 후 김 위에 녹말 물을 얇게 바른다. 그 위에 김을 한 장 더 놓고 또 다시 녹말 물을 얇게 발라준다.
④ 김 위에 두부 양념한 것을 도톰하게 올린 후 고르게 펴 준다.
⑤ 두부 위에 녹말 물을 얇게 펴 바르고 김을 올려놓는다. 김 위에 녹말 물을 바르고 다시 김을 올려 덮는다.
⑥ 앞뒤를 뒤집어 가면서 고르게 익힌 후 먹기 좋게 썰어 낸다.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 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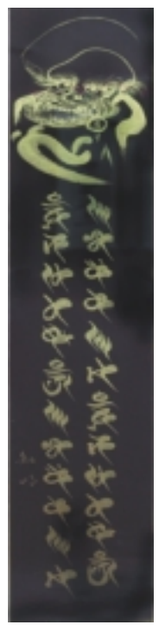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秘法전수
못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지방인 숙식제공)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퇴마영혼치료
빙의 · 신끼 · 무병 · 정신질환 · 우울증 · 두통 · 알콜중독 · 만성질환
조상이나 타인 영가를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명없이 몸이 아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병고치유함
055)261-1230
011-586-6091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 불사나 보시하실 분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51-1500.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지도
토요일 철야기도
영가천도, 우리말 천수경
▷상 담 환 영◁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바라 · 작법무 · 태평소 · 살풀이 ·
지전무 · 극락무 · 회심곡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역학강의
명리 · 육효
적천수천미
한문원서
051)523-8425
※통화중이면 지방 강의중 입니다
010-3667-8425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51)558-8830~1
010-3928-0006

수양기도공부
●1인 1실
●침구 및 삼식 공양 제공
●구돌,온돌,황토방
●월 30만원(선착순)
055)883-2933
011-446-2933(청학사)

동양철학 작명학 배우실 분
◆ 3개월 완성
◆ 기초에서 완성까지
◆ 저렴한 비용
◆ 수강자 편한 시간선택
유심 동양철학 연구원
상담 전화 011-711-5072

명리학 책임지도
과목 : 명리학 + 성명학
28년 실전경력 책임지도함
월4회(토,일) PM 7시~9시(4개월 완성)
(초 · 중급반 2개월+고급반 2개월)
법성사 법성스님(서울 강서구 발산동)
02)2658-7003
011-695-1626

지리산 청정지역 고사리 판매함
자연 채취자 : 지리산 견성암 스님
중량 : 170g, 가격 : 10,000원
주문 전화 055)746-0059
010-5530-0059
•입금계좌 : 농협 887-02-053166
(예금주:성기철)
•주 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 222번지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는
전통종단의 맥을 이어갈 예비스님 및
사미승을 모집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자율적인 교육, 1인1실
055)381-1199
011-590-1198

법회를 주관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407-0298
010-6328-395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7-206-0113
비구부전스님을
모십니다
011-698-3837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각종 재의식,법회가능 하신분)
▷ 경기도 장흥
031)826-7489
011-706-7489

조용한 도량입니다
공부나 요양,기도
하실분 모십니다
▷청강사
016-9506-5706

부전자리 원합니다
(50대 초반 비구스님임)
010-9474-08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52)275-0829

조용한 산사에서
대를 이어 수행할
30~40대
비구니스님과
행자 모십니다
017-569-3722

비구니기도스님
두분 모십니다
010-6251-2108
062)224-0255

본 사찰에서 평생수행하실
부주지 비구,비구니스님과
건강상 수양하실 처사,
보살님과 65세이하
부부한쌍을 초대합니다
위치:전남(포교당 개원 관계로),일체 무보시
011-9906-03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북구
011-527-59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소백산 천년고찰)
▷경북지역
011-527-0637

정법수행도량에서
기도스님(부전)이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10-4520-6787
054)433-6315

서울 조용한 암자에서
가족같이 지낼 스님,
행자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1-306-3504

부전(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서울 은평구
011-9350-32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010-7420-257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576-4450

조용한 산사에서
평생을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
043)297-8728
016-428-872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5세~70세 미만)
월 보시금 80만원 ▷울산
처사님 구함(60~70세 미만)
052)221-0092
011-9318-3230

스님 되실 분
(남,여)
033)263-5904
011-370-5904

공양주 보살,
총무보살 구함
011-493-1121

공양주보살님 종무소 직원
(남여 PC가능한분)
▷경북 청도
054)371-0101
011-378-2221

조용한 암자에서
생활하실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사찰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급식 담당할 공양주,
채공보살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경력: 신심있는 분
•숙식가능, 퇴직금, 건강보험
•위치: 고양시 화정역 부근
019-9729-7005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행자(예비스님)모집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동참자 및 인수할 분
1. 사찰(노인요양원 및 추모사업 진행중)
대구근교 30~40분, 대지 약 700평, 건70평
인수가 4억5천(융6700만)
2. 솔밭, 수목장 추모공원부지 2만평(평당12만)
대구 20여분 거리, 절을 운영할 분을 모십니다
053)471-3123 / 017-501-2315 (주)유한복지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간부스님은 특별 혜택이 있음)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탈종공고

● 사찰명 : 불유정사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99호
● 성 명 : 묘원(이말희)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1(2007)년 6월 20일

(사)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사찰명 : 천지사
●주 지 : 영암(김준영)
●주 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6번지

●사찰명 : 황용사
●주 지 : 경봉(윤진만)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31번지

●사찰명 : 지장암
●주 지 : 원광(안만규)
●주 소 : 부산시 진구 전포2동 196-25

●사찰명 : 천신암
●주 지 : 지성(권옥금)
●주 소 : 부산시 북구 구포동 703번지

위 사찰들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6일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법하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지역
● 법당 : 30평
● 명부전 및 요사 : 300평
● 부지 : 1200외 150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임)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마산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7억3천
● 위치 : 충남 당진
● 법당 · 요사 : 140평
● 부지 : 9,500평
● 가액 : 13억5천
● 스님 및 무속인 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 찰 안 내
● 위치:원주시 속초면 평장리 원주시내에서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교외지역
● 부지:360평, 건평:85평(2채)
● 현재 사찰로 사용중이나 일반가정집,팬션으로 사용가능
● 가액: 3억 6천, 심야전기 사용
033)731-0997
010-4874-0997

포교원안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법사님,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043)211-0579

포교당안내
● 위치 : 창원시내
● 평수 : 90평 (4층 건물중 3층
● 방3, 사무실1, 주방, 화장실2, 샤워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부지 : 220평
● 법당 : 25평 목조
● 요사 : 20평
● 가액 : 2억3천
● 위치 : 서울 산속
● 부지 : 500평 국유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5억5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 안내
● 위치:속초 중앙동
● 건물 60평
● 내부시설 황토, 좌욕시설 완비
● 환자 치료하실 스님이나 역학을 보실 스님이면 아주 적합한 곳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54)383-9972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031)405-4181
010-6321-16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터미널4km
● 총평수 : 500평 (대지, 과수원300평, 법당18평, 요사채40평) 창고채1,차고1,미륵전불, 마애불상 모셔져있음
● 가액 : 1억 3천만원
010-7667-149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구
● 부지 : 2,000평
● 대웅전 50평 (주지실 및 요사채)
● 심야보일러 완비
● 가액 : 3억 5천만원
● 전세 및 달세 가능
010-2667-7643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바닷가
● 부지 : 130평 (시유지 포함)
● 법당 목조 25평
●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120년 전통사찰
● 가액 : 3억2천
● 위치 : 삼랑진역 10분거리
● 부지 : 33,000평 (관리지역 7,000평)
●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2동 120년 전통고찰 정남향 산세 빼어남
● 가액 : 4억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
● 부지: 1200평(시유지포함)
● 법당 : 30평, 요사 : 30평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4억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영험한 도량으로 포교지로 적지임
● 위치: 경북 영덕군 소재
● 부지: 약 1000평
● 법당: 30평
● 요사: 2동 50평
● 기타: 일주문, 석등, 황토방 등
● 가액: 1억 4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아주 좋음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사찰(급)안내
● 천하명당, 양쪽계곡 흐르고 전면에 넓은 호수 있음 (토목완공) 광주광역시 30분거리
● 조립식 임법당, 창고, 차고 삼존불, 각단탱화 무료보시
● 평수 : 905평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6782-2916
010-5255-9040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조립식 지붕, 단층 요사채 (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토 굴 안 내
● 위치:영천시 화남면 면소재지 대구에서 자동차 20분거리 북영천IC에서 5분거리
● 임법당, 요사채, 마당에 관음상석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5천 5백만원
※ 사정상 인연있는 분 기다립니다
011-9390-9530
054)337-8956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아산시(시내 요지)
● 2층 건물중 2층
● 평수 : 약40여평 방2, 욕실,거실, 주방 법당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집기류 일체포함,몸만오시면 됨)
010-6374-0034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1-820-46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앞)
● 평수: 75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평수 : 28평
● 대지 : 1,100평
● 교통편리, 최고의 명당
● 가액 : 8억 7천만원
010-7795-8805

제주 단독주택(급)안내
● 위치 : 제주시 애월읍 (해수욕장 5분거리)
● 대지 : 51평(멀리 바다가 보임)
● 건물 : 원룸식 1동(깨끗함)
● 마당에 텃밭있고 차량 2대 주차가능
● 가액 : 4천3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64)799-5617
010-6215-878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 대지:약170평,건평:약70평 (1층법당,2층요사채) 저택같은 2층집
● 마당넓음, 위치최고 시설 깨끗
● 보증금 : 1천만원/월7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5201-7499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표충 비각 근교) 국도변 위치,밀양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약 200평
● 요사채 60평(적벽슬라브)1동
● 법당 20평(아미타불,삼존불)1동
● 최고급 시설, 태양열, 단독지하수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 일절
● 가액 : 2억 1천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5883-50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토굴 임법당
● 위치 : 북한산(불광동)
● 단독 38평
●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약간
010-5573-2626
※공부하실 스님이나 기도처로 적합

사찰(터)안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 부지 : 200평
● 가건물 임법당 뒷쪽은 야산, 앞쪽은 시내와 바다가 보임. 아주 조용함
● 가액 : 1억
011-693-5324
-오후에 통화 가능-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수성구 중동
● 4층건물 4층(승강기유)
● 시설일체, 즉시법회가능
● 평수 : 60평
● 보증금 1000만/월7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6-853-5519
053)768-3366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근교
● 목조법당 4채, 부속건물 5채,
● 가액 : 보신 후 결정
010-3163-4747
061)537-484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총평수 : 104평
● 건물 : 26평
● 가액 : 7천만원
011-884-7767

사찰 터 안내
● 위치 : 부산 포교당 최적지 수영구 광안동 수영지하철역 도보로 5~6분
● 대지 : 98평(실사용평수 100여평) 벽돌 슬라브 건물 35평(구옥)
● 가액 : 2억 9천만원
010-5084-0108

토굴 임법당
● 위치 : 북한산(불광동)
● 단독 38평
●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약간
010-5573-2626
※공부하실 스님이나 기도처로 적합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 암자,명당센터겸단식원,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430-1144

사 찰 안 내
● 위치: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법당 1동 26평, 요사1동(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055)372-0123

암 자 안 내
● 위치: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 평수:1,300평
● 흙집 있음, 조경시설 되어있음
● 가액 : 2억8천만원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암면
● 초정약수터 10분거리
● 부지670평 법당20평, 요사채 35평1동, 20평1동
● 충북문화재 21호 석불 있음 텃밭에 매실수 50부 절앞에 버스 다님 조용한 기도도량
● 가액 : 2억 4천만원
017-267-44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1)966-11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대중교통편리)
● 건물 1,2층(각60평), 법당완비
● 1층 : 법당(약40평), 산신각, 용왕당
● 2층 : 종무실, 요사채
● 월세 : 110만원(1,2층 포함)
총인수금 : 2300만원 (비품포함)
010-3534-387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구미시 근교
● 법당 : 20평 요사채, 식당, 산신각
● 대지 전임야 1,2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011-540-3313

암자(토굴)안내
● 최상도량
● 위치 : 충남 공주 정안면
● 대지 : 120평, 건물 32평 고건물, 흙집
● 방3, 거실, 주방, 마루2 모든 집기 완비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7천8백만원
041)858-8943
017-425-63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 평수 : 40평(5층건물 3층) 방2, 주방, 화장실 내부시설완비 (인테리어 1년미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상담 후 결정
010-5529-8799
02)529-8799

포교원 안 내
● 위치: 대전 태평동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
● 평수 40평, 3층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미륵동불,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탱화
● 에어컨 및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42)525-5355
018-456-633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 평수 : 25평
● 삼존불 봉안, 각단 탱화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280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 (절충가능)
018-315-0108

사찰임대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 법당25평, 요사채25평
● 마당넓고, 주차장따로 20평
● 용왕당 별도 해수관음 별도 모셔져있음
● 가액 : 답사 후 절충
● 오래된 사찰. 비구니스님만 가능함
※꼭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11-590-2878

탈종공고

● 사찰명 : 청룡사
● 주 지 : 현우 덕륜(최수영)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561-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불기2551년 5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포교당(불교회관)안내
● 위치:경남 양산
● 2층 60평, 옥상 60평
● 법당 5불전, 회관 및사무실, 방4
● 회관에서 각종 신행단체 활동과 철학 사경, 교양대학 운영으로 월수 10만원
● 전세 2천만원, 월20만원,시설비 절충
055)382-8277
016-661-3577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충주시
● 목조 기와 7채
● 평수 : 약2000평
● 계곡인접 앞이 확 트임
● 신축 2년된 사찰
● 가액 : 7억원
010-6399-5311

사찰부지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 부지 : 1870평(전)
● 우측에 맑은 계곡, 앞쪽은 큰 하천
● 가액 : 2척9천만원
011-531-5562

사찰전세안내
● 위치: 전남 장흥
● 법당 : 20평
● 대지 : 350평(실 사용 약600평) 총 건물 5동(전체 기와단청)
● 거대 바위산 밑 위치 영가천도 영험도량
● 가액 : 전세 5천만원 (양도 가능)
016-9660-1348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대천(시내에서 4km)
● 법당, 요사채1,2층, 황토방, 산신각
● 관세음보살상, 탑
● 저수지 있고 경관이 좋음 신축건물, 도로 인접
● 시유지 땅(정원) 약600평
● 가액 : 4억 8천만원 (집기일체포함)
011-9818-35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 산세수려 기도도량, 조경완벽함. 계곡에 물 흐름
● 부지 13,000평
● 법당, 삼성각,요사채 30평, 황토방1,2층 40평
● 가액 : 10억
● 중개인 사절, 답사후
011-588-1339

사 찰 안 내
(팬션 별장 가능)
● 위치 : 경주 시내 10분거리 (시내버스다님)
● 부지 : 종교부지 300평 외
● 대지 150평(합450평)
● 사찰허가, 신축1년
● 법당 15평, 요사채 27평,
● 실외 화장실2, 컨테이너1동 넓은 주차장
● 집뒤는 산, 소나무 및 대나무 숲 조용하고 아름다운곳
● 가액 : 3억 5천만원
054)751-3372
019-357-7373

사찰(급)안내
● 위치: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 법당 : 20평, 요사채 : 65평
● 신축 신도회관 : 65평
● 대지 : 1,000평
※서천가는 21번 국도에서 인접
● 가액 : 3억원(절충가능) (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함)
041)934-2134
010-4734-2134
010-4844-9779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 대지 : 500평,
● 건평 : 약1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 대구부산 신고속도로→ 밀양IC에서 6분거리
● 대지 전체 돌담 법당 뒤 대밭 옛날 장독 100점 포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572-15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택가 포교당)
● 대지 : 62평
● 2층 법당, 1층 상가점포 3개, 방2(월세나옴)
● 6차선 도로에서 10m 떨어진 코너집
● 가액 : 5억원 (융자5천5백만원포함)
※기존 사찰과 교환가능
011-753-9082
031)257-59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구 50분, 창녕 20분, 진주 1시간, 의령 20분(적교삼거리에서5분))
● 대지 : 약 400평
● 건물 : 법당(목조기와15평)
● 요사채(신축30평) 평당300만원이상들었음
● 조경공사 (석축및 옹벽콘크리트 약 4천만원소요)
● 가액 : 2억2천 (설정없으나 8천정도 설정할수 있음)
011-9329-4241
011-9506-6612

사찰 터 최적지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반야 계곡 (1200평당 15만원)
● 제천시 수산면 남한강 옆 (1400평당 10만원)
● 단양군 · 읍 천동리 소백산 밑 (3000평당 5만원)
016-464-6386
제천시 보월조경 한산 합장

현대불교 독자위원회 토론 중계

봉축 특집 '신선'…새로운 시도에 박수

감동·전문성·시사성 등 적절한 '배합' 노력을

현 대불교신문 독자위원회가 6월 12일 저녁 인사동 모 음식점에서 첫 회의를 갖고 봉축특집호인 629(5월 23일자)~631호(6월 13일자)에 보도된 내용과 지면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신문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기획과 개선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은 서신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보내왔다.

현대불교 제1기 독자위원 명단

손재현(동국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상호(건설교통부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연구원) 김재복(고성동중학교 서무실) 김남기(원주 성불회 포교부장) 김시열(도서출판 운주사 대표) 최임배(도서출판 학지사 편집부장)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민정희(사단법인 로터스월드 국제교류팀장) 이남숙(현대불교 신수회 회장) 김민자(수필가)(무순)



지난 6월 12일 열린 현대불교신문 독자위원회 위원들이 현대불교 629~631호를 모니터링 한 뒤 토론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시열 최임배 이남숙 한주영 이상호 위원)

'불교 통섭을…' 등 기획 돋보여

이남숙 : 629호 봉축 특집호를 보면서 '부처님 오신날'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첫 페이지에서 연화장세계를 보여주는 축하공연의 모습도 장관이었고, 각 종단 여러 스님들의 봉축법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가장 좋았던 기사는 B14에 실린 종립학교 이사장에게 듣는 청소년 포교 비전에 대한 서면 인터뷰 '청소년 포교 이렇게 해요'였다. 이사장님들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청소년포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것에서 희망이 보였다.

최임배 : 특집호 신문을 받아보고 'DJ가 다시 북한에 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쇼킹한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내용적으로는 A6면의 '불교 통섭을 말하다1,2' 기사를 보고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특히 학제간 장벽을 넘어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용어 및 응용불교학 발굴은 신선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주영 : 좌담회 '연등축제'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본다. 연등 축제가 10년이상 계속되면서 대중들은 식상해 하는 부분도 생기고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좌담회를 통해 연등 축제의 의미와 본질을 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이 좌담회에서의 아쉬움은 시청 앞 상징물 설치, 예산의 문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남기 : 631호 3면에 보도된 '9년만에 울린 감동의 웨딩마치'를 보고 감동을 느꼈다. 우리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서 장애인들에게 큰 관심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 장애인들도 우리의 부모요 형제자매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이 기사는 참으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욱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남숙 : 631호 15면 '영산재 보존회' 기사는 법공양 이기는 하지만 범패승의 계보, 영산재 의미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좋았다. 전문성과 시사성이 적절히 잘 표현되었다.

독자층에 맞춘 어휘 선택 필요

이상호 : 높은 수준의 학술모임을 소개하는것은 바람직하지만 고급정보를 독자들과 향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일반인들이 응용할 수 있도록 쉽게 소개했으면 한다.

이남숙 : 529호 A14면 '새싹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에서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가 주제인데 제목의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온 것 같다. '청소년 포교 이렇게 해요' 중간 부분에 쓰여진 '본선 참가자들 삼귀의 목소리도 달라'에 대해서는 기사내용을 읽어 본 후에 의미를 알았다. 독자들이 청소년층인데 어려운 어휘가 나온다. '저학년들 땡땡이 치마에~~' 부분에서 땡땡이 라는 표현이 어린이답지 않았다.

'인물경 세상경'도 제목과 글의 내용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아 아쉽다. 부처님 말씀과 마음자락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경에 대한 뜻과 글의 핵심이 뚜렷했으면 한다.

새로운 스님·역사 발굴 노력해야

최임배 : 권경희 선생의 '상담심리학과 불교'는 참 좋은 기획이다. 신문이 젊어져야 한다. 젊은 층이 갈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종교의 경우 심리학을 적용하여 선교하고 있다.

김시열 : '선지식을 찾아서' 면은 새로운 스님을 더 발굴해야 한다. 특히 알려진 스님보다는 뒷방 노스님에게 역사적 기록이 많을 텐데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한다. 또 출판면이 한 면으로 줄었다. 그런만큼 일반서적 보다는 불교출판사 발행 서적 위주로 면이 채워졌으면 한다.

이남숙 : 앞으로 출판면을 증면한다면 작가 인터뷰를 통해 신간서적을 소개했으면 한다. 또 연재들을 보면 간화선 위주로 선승들만 너무 부각되는 느낌이 드는데 염불선 등 다양한 수행법을 하시는 스님들도 보여줬으면 한다.

한주영 : 사하촌에 대해 안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하촌을 가다' 기획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사하촌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부분보다 숨은 역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리하 생각한다.

김남기 : 재가불자들의 종단행정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광고 디자인에 신경쓰길…

최임배 : 종교신문도 광고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디자인이 가미되지 않은 광고는 신문지면의 수준까지 떨어뜨린다. 불교언론은 대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해야 한다. 그래야 여론을 조성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정책화 할 수 있다.

이상호 : 불교수행 자체가 의지적이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쳐가야 수행자이다. 잘못된 점을 불교 언론이 감쌀 경우 자칫 부처님 사상이 왜곡되고 불교계가 잘못갈 수 있다.

김남기 : 여름수련회의 과다한 비용 책정에 대한 시정 요구기사가 필요하다.

한주영 : 불자들은 문제제기에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세상의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으면 한다.

김시열 : 현대불교가 독특한 색깔을 가지려면 새로운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들면 다양한 수행법을 다루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를 읽고

'지도법' 등 정보 위주로 썼으면

'632호 10면 믿음과 닦음1' 페이지에 소개된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 하안거 결제' 기사**는 현장감과 깊이가 동시에 느껴져서 유익했다.

강남 도심 사찰인 봉은사 시민선원 소개 기사였는데 방부를 들인 회원들의 면접 모습이라든지, 선감 스님의 좌선 지도법 등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생생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지면을 통해서도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하는 발심을 일으켜 주기에 충분했다. 다만 한가지 더 욕심을 내자면 기사 비중상 현장 스케치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스님들의 지도법에 대한 설명을 좀더 늘려 지면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번 기사는 아니더라도 매번 신문을 읽다보면 거의 현장 스케치 묘사를 하다 기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 독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현장의 숨소리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지도받은 가르침들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김정남(강원도 원주시)

개선 법안 국회 제안 반가운 일

631호 1면 **'불교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 관련 기사**를 읽었다. 사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조계종과 국회가 함께 공청회도 열고 개선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서울 봉은사에 가곤 하는데, 그때마다 고풍스러운 전각 모습 대신 주차장에 즐비한 자동차 행렬이 먼저 눈에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종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도시공원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찰 경관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찰의 고즈넉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에 짓자는 것인데, 그것이 불법(不法)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봉은사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오히려 전통사찰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서현(서울 강남구 논현동)

말로만 어린이 포교 '정말 한심'

631호 1면에서 **'조계종 어린이 법회 현황파악' 기사**를 보니 교구본사중 절반이 어린이 법회가 없고 특히 S사는 본 말사 통틀어 한군데도 어린이 법회가 없다고 한다. 스님들이 전법에 최소한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극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나라 불교의 앞날을 기대 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시자마자 제일 처음 선언하신 것이 전법(포교)이 아닌가?

타종교는 한집건너 들어서고 세우자마자 성인 예배는 물론이요, 어린이 예배 청소년예배를 자동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계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헤맬 것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붓다뉴스 id: 도원)

독자투고 받습니다

독자여러분께서 현대불교를 읽고 느끼신 점이나 신문사에 바라는 점을 200자 원고지 2~3매 분량으로 보내 주십시요.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wwkim@buddhapia.com**

대불련 고구려 역사유적 탐방단 대불련 발도장찍다!!!

COREA의 고구려를 찾아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고구려의 주무대였던 중국동북부지역 답사를 통해 세계화 시대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고자 합니다.

또 반도의 역사가 아닌 광활한 대륙의 고구려 역사를 탐방하며 대학생 불자들은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펼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주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론의 장도 열고자 합니다.

일 시 : 2007년 6월 25일(월)부터 - 30일(토) (5박 6일)
장 소 : 중국 동북지역(대련-단동-집안-서파-백두산-통화-환인-심양-대련)
대 상 : 전국 대학생 약 50명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현대불교신문사, 중심회(정무스님 재가문도회), 대불련 총동문회



◆ 고구려 역사유적탐방단 일정 ◆

6월 25일(월)	요동반도의 끝을 밟다!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대련도착 고구려의 가장 아름다운 성 백암성!. 심양 백암산/ 통화로 이동 유적답사단 오리엔테이션
6월 26일(화)	백두산 천지에 오르다!	서파 / 고산 화원대, 금강대협곡, 5호 경계비, 천지 / 통화로 이동
6월 27일(수)	424년간 고구려의 수도 집안 ! 고구려 건국의 요람 환인!	집안박물관, 광개토태왕비, 광개토태왕릉, 환도산성, 장군총, 오호묘, 중조철교, 국내성 등 고구려 건국의 요람 환인! 졸본성, 오녀산성, 비류수, 장군분, 고군분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강의1 -고구려 역사 바로알기
6월 28일(목)	압록강을 따라서	주몽이 유목민과 정착한 본계 그리고…고구려의 천리장성 호산장성. 환인 / 단둥 / 대련. 본계 본계수동굴, 천리장성 호산장성 압록강을 따라서(신의주, 위화도, 월량도) 강의 2-동북공정 바로알기
6월 29일(금)	대련에서의 마지막 밤	여순감옥, 자연사 박물관, 비사성 답사를 마치며(평가의 장)
6월 30일(토)	요동반도를 떠나며	대련출발 / 인천도착

◆ 후원 안내 ◆

이 시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글로벌시대, 당당한 리더로서, 가슴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 우리의 현 위치를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무한능력을 펼치기 위해 떠나는 저희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불자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큰 거름이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140228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무한능력발전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http://town.cyworld.com/yes)

칠성신앙 불교로 포용되어 '칠성여래'로 탄생

불화 속의 명장면 (28)

칠성탱(상) : 日 애지현 보주원 소장 '칠성도'


그림1 : 일본 보주원 소장 칠성도(조선전기)

아이를 점지해 주고 또 무병장수케 해주는 칠성님이 부처님으로, 즉 칠성여래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 한 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칠성각에 모셔진 칠성여래는, 예부터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한 칠성님이 부처님으로 화신하신 것이다.

집안의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향하기만 하면 가장 간단한 제단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 앞에서 두 손 모아 빌었던 어머니들의 자식을 위한 염원은, 그 어떤 화려한 제사에서보다 뜨겁고 간절하여, 그 파장은 밤하늘 총총 북두칠성님께 가 닿고도 남았음직하다.

칠성신앙은 종파나 그 영향관계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고대국가 성립기에서부터 그 유래가 깊은 범국가적 범지역적 신앙이었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소급해보면, 수명을 관장하는 신 · 나쁜 기운과 악재를 퇴치해주는 신 · 과거급제케 해주는 신 · 음식과 건강을 주관하는 간장신 · 사내아기를 점지해주는 신 등 다목적 하늘님으로 기능하며 민간에 뿌리 깊게 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사찰의 칠성각에 걸리는 칠성탱화에는 이 북두칠성이 일곱 분의 부처님, 칠성여래(또는 칠성불)로 신격화되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칠성탱을 살펴보고 있자면 많은 의문점들이 일어나게 된다. 통례적으로 탱화의 정중앙에는 그 불화의 주존불이 그려진다. 그런데 칠성탱의 중심에는 칠성여래가 아니라, 어김없이 치성광여래가 금빛나는 둥근 금륜(金輪)을 들고 그 중심불로 앉아 있다. 그리고 칠성여래는 이 치성광여래를 보좌하는 형식으로 그 좌우에 서있는 형태로 묘사된다.

아미타탱의 주존불은 아미타불, 삼신탱의 주존불은 삼신불, 지장탱의 주존불은 물론 지장보살이다. 그런데 칠성탱의 주존불은 칠성불이 아니라 치성광불인 것이다. 이점 이외에 또 하나의 의문점은 한 작품 속에 여래격에 해당하는 신격(神格)이, 치성광여래와 칠성여래, 둘이라는 점이다. 보통 한 불화 속에 가장 높은 신격은 정중앙에 배치되는 여래 한 분이다. 이 주변으로 보살 · 성중 · 호법신 순으로 주존불을 보좌하는 협시군중이, 그 서열에 따라 중심에서 그림 바깥쪽으로 늘어서게 된다.

이처럼 불화의 기본 형식에서 확인되듯, 불교의 신전 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으나 이들에게는 엄연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그 히에라르키(상하로 정렬되는 질서 · 조직관계)에 따라 배치가 결정된다. 그런데 칠성탱에는 최상의 신격에 해당하는 여래가 두 종류로 공존하는 이례적 현상을 보인다.

조선후기를 풍미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불화는, 이론상으로는 그 주존불의 명칭에 따라 '치성광탱'으로 불리어야 마땅하나 우리에게는 '칠성탱'으로 알려져 이미 그렇게 굳어져버린지 오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협시였던 칠성신의 인기가 주존불의 위상을 능가해버렸다는 것이다.

이 칠성탱의 연원을 따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관련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고려시대 작품인 <치성광여래제성강림도>(미국 보스톤미술관 소장)를 만나게 된다. 북극성의 화신인 치성광여래가 북두칠성, 삼태육성, 28수 등의 제반 별자리 신들을 거느리고 지상으로 왕림하는 장면을 묘사한 불화이다. 이러한 형식의 불화는 조선전기까지 답습되어 내려온다(연재4 참조). 이 치성광여래제성강림도에는 칠성신이 그림 외곽에 포진한 28수와 같이 비교적 작게 묘사되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특별히 강조된 바가 없고 또 형태도 여래의 모습이 아니다.


그림2 : 칠성신에서 칠성여래로의 화신

마본 바탕 조선 특유의 회화, 서민적 냄새 물씬 유일한 조선 전기 작품 추정…민중 불교의 서막

그러던 것이 조선후기의 작품들을 보면 어느새 그 모습이 커지고 또 형태도 여래형으로 바뀌어 대대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명칭도 더 이상 <치성광여래도>가 아니라 <칠성도>로 불리어 진다. 조선후기에 대유행하여 전해 내려온 이 칠성탱은, 한국 불교문화의 한 특징을 규정짓는 불화 장르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많은 별자리신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칠성신은, 언제부터 또 어떠한 이유로 칠성여래인 부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확대 해석되는 과감한 변신을 하게 되었는가.

이 의문에 실마리를 던져주는 귀중한 작품을 일본의 조그마한 어느 지방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교토 서원사를 본찰로 하는 한 정토종파 사원들이 소장한 보물들을 전시한 기획전이 일본 안성시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적이 있었다.

고려불화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상으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작품이 이 칠성도(보주원 소장, 그림1)이다. 조선시대 작품이 틀림없으나 조선후기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아한 고식(古式)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운데 치성광불 위로 포부도 당당하게 늘어서있는 칠성여래이다(그림2). 작품 위쪽으로 상서로운 오색의 기운이 뻗쳐오르고, 흰색과 붉은 색의 연화좌 위에 각기 다른 포즈와 수인을 취한 칠성여래가 탄생해 있다.

치성광불을 중심으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 삼태육성, 삼공, 보성과 필성, 그리고 28수가 빼곡이 둘러 있으나, 작품의 초점은 중심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상단의 생동감 넘치는 칠성여래에 집중되어 있다. 도교의 성군(星君) 모습을 한 나머지 협시와는 구별되는 형태로, 그 강력한 존재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작품의 명칭은 의문의 여지없이 <칠성도>로 붙여지게 된 것이다.

조선후기 다수의 칠성탱에 선행하는 유일한 조선전기 작품(16세기)으로 추정되며, <치성광여래도>에서 탈피한 현존하는 최초의 <칠성탱>인 것이다. 비단 바탕의 고급스런 고려불화와는 달리 마본 바탕이고 또 조선 특유의 회화적 개성이 물씬 풍겨 서민적 냄새가 난다. 작품의 양식에서 조선후기 민중 불교의 서막을 알리는 전조를 느낄 수 있다. 대중 속에 이미 만연해 있던 칠성신앙이 불교로 포용되어, 그 민심이 칠성여래라는 부처님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이제 사찰 속에 마련된 칠성님의 전당, 칠성각은 대웅전 못지않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각이 되었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성 명 서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제방의 고승대덕 큰스님 그리고 사해불자 여러분 에게 고합니다.

07년 6월 13일자로 현대불교신문의 제2면의 하단에 게제된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대 종정 고성대종사 추대식"광고는 우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광고로서,

전임 총무원장 이 법우 스님이 사천 모은사 사태에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18일자로 총무원장 직에서 해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청사인 일붕선원을 지금까지 강제로 불법 점거한 체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승려 김동성 스님과 짜고 김동성 스님의 은사인 미국에 있는 고성 신일권 스님을 한국에 불러 들여서 꾸미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작태이오니 사해불자 여러분은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는 제3세 종정이신 봉암 장 연종 스님이 건재해 계십니다. 우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들은 봉암 장 연종 종정 스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비불교적이고 반 종단적인 행위를 일삼는 해종행위자들을 과감히 척결하여 누란의 위기에 처한 종단을 재건하는 막중한 사명을 다할 것을 불조의 혜명 앞에 엄숙히 서원드리며 다시 한번 이 법우 스님에게 공개 경고합니다. 하루 속히 일붕선원에서 자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우 스님은 이 공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일붕선원을 강제 불법점거할 시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이 법우 스님이 져야 할 것이니 속히 자진 퇴거하시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헌 종법을 무시하여 제4대 종정 고성 대종사 추대식이라는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마시고 일붕대재일을 맞이하여 일붕 큰 스님 영전에 꿇어 엎드려 참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2551(2007)년 6월 15일

대 한 불 교 일 붕 선 교 종

원로회의 중앙종회 의장 **도화**
원로의원 **동명** 부 의 장 **효봉**
원로의원 **청곡** 사무처장 **법원**
총무원장 **법철**
부 원 장 **무정**
총무부장 **진소** 총무국장 **월광**
교무부장 **지연** 교무국장 **왕연**
재무부장 **동월** 재무국장 **정각**
사회부장 **상묵** 사회국장 **효산**
규정부장 **청원** 규정국장 **종호**
기획실장 **대공**
사정원장 **일암**
부 원 장 **일선**
교육원장 **법운** 포교원장 **법보**
부 원 장 **도일** 부 원 장 **덕암**

이하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일동



대행스님

자기 안에다 모든 것을 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봅시다. 지구에 관한 건도 옛부터 활동하고 시각적으로 움죽거리던 장소가 지금 장소와 둘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도 우리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노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놓는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하는 그것이 방하착(放下着)이라면 첫째, 모든 잡념과 전자에서부터 얻은 그 습성을 다 녹여버리고 자기의 그 참 생수맛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차적으로 자기를 다시 한 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다음에 세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툴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재차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을 살림살이에서 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주 놔버리는 데, 맡겨놓고 사는 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온갖 작동을 하면서도 그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운전수에 모든 것이 달려있듯이 모든 걸 거기에 맡겨놓음으로써 전자부터의 자기 종문서를 몰락 태워버릴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탄생했을 때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 세상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이 솟아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이것이 걸맞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재해서 거기다 다시 놔야 되는 법입니다. 밖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안팎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면을 다 쥐고 갈피를 잡고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됐다는 걸 번연히 안다면 이것을 믿고 들어가라. 믿지 않는다면 상대가 걸리고 상대가 걸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믿고 상대가 없다면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소릴 들었다 저기에서 저 소릴 들었다, 저걸 봤다 이걸 봤다 했을 때에 믿지 못하면 나는 어떠한 말을 한다, 행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라면, 둘로 보지 않았다면, 믿는다면 '아, 그렇기도 하겠지. 고정됨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안에다 모든 것을 굴려서 '아, 어찌 저렇게,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러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될까?' 하고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세 단계가 없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리를 거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같이 죽어서 같이 나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러분이 선원에 오시는데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만 구제를 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디 앉아있는 거나 서있는 거나 고정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살림살이처럼 남편이 급하면 급한 대로 나가서 뛰다가 사흘도 못 들어오고 나흘도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은 바빠서 돌아치는데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말입니다, 제때에 밥도 못 먹고, 제때에 잠도 못 자고, 참, 피로한 몸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들어온 사람더러 말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나는 죽도록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당신이 좀더 집에서 잘해줬으면 자식들과 모든 것이 평안할 거를 왜 당신은 나가서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 전에는 안 그러더니 맘 변했다.' 이거거든. 그러나 남편은 그게 아니라 제 속을, 나가서 일하는 걸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또 만약에 말을 해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는 말이라면 말을 못하는 거라. 그렇다면 말을 못하고 나를 믿어라,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될 거다 이러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믿어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믿어진다면 아무 말 대상이 없는 거야.

아,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잘 알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국내 돌아가는 것도 알고, 모든 거를 보고 알죠. 그러면서 답답하게 마음을 좁게 생각하면서 내 생활이나 가정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걸리는 일들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선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몸뚱이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일할 때에는 말도 그렇고 몸뚱이도 그렇고 그것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림 · 최주현

때에 따라서, 그냥 순간순간 급하게 돌아가면서도 여러분을 만나주는 이 마음들을 좀더 생각해 본다면 어떠할까? 좀 지혜를 넓힌다면 어떠할까?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을 생각하고 셋을 생각하고 넷을 생각하고 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유리할까? 여러분을 위해서지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누구나가 목탁이나 쳐주고 염불이나 해주고 얼굴이나 봐주고 말이나 조금 해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도 편안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알지 못하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그걸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좁게 생각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또 스님네들, 보살님들, 보살행 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면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인도해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카버해 가면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죽이나 아쉽지 않고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호국불교나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은 가만히 놔두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봐서 어떠한 것이 제일 문제일까요? 그걸로 말미암아 '저 스님은 뭐를 하기에 그러나?' 하고 의정을 가지고 한번 관(觀)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안으로 굴려봐야지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돌아오면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을 한 번 뛰어넘을 수가 없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참 지혜를 넓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그 마음과 모습과 이 뜻이, 장소와 모든 것이 전달이 돼서 지구가 생겼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수화풍 네 친구가 동업을 해서 회사와 같이 형성을 해가지고 그걸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쪽쪽이 나누다 보니까는 대천세계(大千世界)니 중천세계(中千世界)니 소천세계(小千世界)니 이런 문제가 나왔고, 오늘날에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행성이 생겼고 은하계가 생겼고 또 우주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모든 형태나 모든 작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자력으로써 돌아갈 때는 무전자력,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한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전자력과 전자력, 또는 유전자력 그것이 한데 합쳐지니까 원자력으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원자력에서 나가는 그 자체로 인간이 형성된 거와 같이, 좀 다르지만 말을 하자면 그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에서 그 힘으로써 작동하는 데는 삼단계가 있다, 인간에게도 있고…. 우린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작동하는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다,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 그 물이, 액체가, 찬 물의 액체나 더운 가스의 액체가 한데 어우러져서 나올 때는 1Km에 한 점 빠지는 그런 거리마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벌어졌다 오무러졌다 합니다. 이 지구 자체의 그 내막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차가 돌아가는데 차 안에 그냥 서있듯

☞22면으로 계속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존자 서박사 경보 대종사

탄신 93주년 열반 11 주기 일붕대재 봉행

삼보에 귀의하옵시고,
사해불자 여러분의 법체강녕을 삼보님전에 원력비옵니다.
사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음력 5월 초 아흐렛날은 세계불교 초대법왕이셨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창종주이신 일붕존자의 탄신일이고, 또 기제일인 일붕대재일이기에 금년의 일붕대재는 일붕존자의 탄신지인 제주도의 일붕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봉행코져 하오니 일붕종도와 일붕문도 여러분은 물론 인연있는 사해불자 여러분들도 수희동참을 바라옵니다.

주 최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주 관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주종무원
후 원 : 일붕전국문도회

아 래

◆ 일 시 : 입재 - 불기2551(07)년 6월 21일(음 5월 7일) / 회향 - 불기2551(07)년 6월 23일(음 5월 9일) 오전 10시
◆ 장 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산 15-8번지 한라산 일붕동산
◆ 연락전화 : 제주종무원(보현사) ☎ 064)794-0511

일붕대재 봉행위원회

▣ 대 제 주 : 봉 암 (종정)
▣ 고 문 : 일붕문도회 고문단, 명예회장단 , 일붕문도회 회장
▣ 제 례 위 원 : 동명(원로위원) 청곡(원로위원)
일붕문도회 부회장단, 일붕문도회 자문위원단
▣ 봉행위원장 : 법철(총무원장)
▣ 봉 행 위 원 : 도화, 일암, 현각, 법운, 법보, 무정, 효봉,덕암, 일선, 도일, 법원, 상묵, 진소, 지연, 동월, 청원, 대공, 월광, 왕연, 정각, 효산, 종호
▣ 집전위원장 : 서병열(문도회 사무총장)
▣ 집 전 위 원 : 황공심, 최묘심, 배상광, 이종근, 윤붕안, 최용국,서정안, 최창배, 장혜철, 최해월, 전혜명, 박교덕, 헤진, 김덕기, 이혜심, 최무송, 현도원, 법작, 송덕성, 유석근, 임창만, 허순애, 최혜숙, 최승부, 이호성, 배상환, 이영선, 최명자, 최명순, 김수임, 서두엽, 이종근, 배준성, 김미영, 한순남, 김부삼, 고성규, 이존영, 김진태, 김부삼, 김춘옥
▣ 준비위원장 : 영수(일붕선교종 제주종무원장)
▣ 준 비 위 원 : 경운, 고광, 불각, 연각, 대성, 경철, 도연, 대원, 일각, 대원, 원경, 철공, 남전, 윤각, 귀일, 현오, 도각, 현오, 법일, 자림, 미산, 명각, 수철, 자각, 제법, 관일, 혜동, 자광, 향봉, 해산, 금강, 현송

모든 잡념과 전자의 습성을 다 녹여버려야!

☞21면에서 계속

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지금,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만히 앉았어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 인간은 도대체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하는 까닭에 이 지금 땅에서나 물에서나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파워가 일어나고 가스가 일어나고, 즉 말하자면 화산이 일어나죠. 이러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거기에서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돌아가면서 그게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생겼는가를 얘기해 봅시다. 바로 그 분비물입니다. 그 분비물에서 물과 흙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생명이란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뛰어넘읍시다, 그전에도 얘기했으니까. 그 생물에서부터 나, 선신이냐, 선신도 악신도 아닌 부처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 묘한 거는 우리가 이 미생물이 되기 이전에도 우린 그때도 거기 있었다는 얘깁니다. 우린 그때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교를 해서 얘길 하는데 끝없는 전자의 작동이, 그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의 장소고 오늘의 모습이고 끝없는 그 진리가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에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부모의 얼굴 생긴 거 성격 같은 모든 거를 다 자식이 알아,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지내는 거를 알고 있어.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 이거야. 자식이 하는 일도 또 다 알고 있고, 그 자식이 부모가 하는 일도 또 다 알고 있어. 상세히는 몰라도 항상 안에 있던 게 겉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숨길 수는 없어.

속에서 불화가 나면 욕을 한마디 해대니까 그것도 알게 된 거다 이거야. 네 속을 알고 있는 거야, 다. 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그 속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도 있거든. 그러나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 차마 안 나오걸랑 안으로 굴리고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얼굴 표정을 좋게 해라. 참, 종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체물리학이라고 말할 거는 없지만 우리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데도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연방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모습과 모습으로 전달이 되고, 물건과 물건으로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 원시 시절에 만약에 그릇이 없어서 뭘 끓여먹지 못했다 할 때 어딘가가 마음에서 이걸 이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흙을 개서 뚱그렇게 해서 말려서 불에다 놓으니까 그것이 익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끓여 먹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그 그릇이 부서졌어도 부서진 그 쪼가리는 있었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먹는 야쿠르트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먹습니다. 석유로도 그릇을 만들어서 쓰고,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발전이 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는 얘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발전을 했고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발전이 되고 흙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선 천만 가지 만만 가지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보석도, 모든 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의 원형을 이룬 이 원자력의 한 점의 마음에서 그 큰 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허망하다, 이 몸뚱이는 허망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몸뚱이는 없어졌어도, 만약에 이 물건을 하나 해놨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몇천 년이 가면 없어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이걸 보고 바탕을 삼아서 바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해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벌써 마음으로, 벌써 눈으로 오관을 통해서 보고 자기가 물건을 만들면서 딴 물건을 만들면서 바로 진화시키면서 자기는 발전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벌써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왜 죽은 겁니까? 산 겁니다. 이 물질은 남이 볼 땐 이것이 망그러지고 다 없어졌지만, 목이 떨어지고 쪽이 다 떨어졌지만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전달해서 벌써 그건 발전이 돼서 딴 걸로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죽는다. 몸뚱이 이건 다 늙어빠졌으니 허무하다 이러죠. 그러나 허무하다는 생각은 마세요.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벌써 전달을 한 겁니다. 모습도 전달을 했고 마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옷을 싹 벗고선 전달이 된 자기의 생산처로 또 준비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가고 오고 한 찰나에 가고 오는데 무엇을 죽었다고 하고 무엇을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왜 얘기 안 해주고 이런 말을 하냐고 하겠지만 세상을 밝게 보십시오. 귀를 열고 눈으로 밝게 보신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요. 그때 그 시절의 방편을 써서 말씀하신 그 언어가 오늘날 시절이 바뀌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시체(時體)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알아들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좀더 애를 쓰고 하는 거죠. 나도 지금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보다 또 구태연하게 나이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었어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만년 수억년이 간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이 모습은 작동하는 대로, 시 · 공간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작동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은 늙는다. 이 몸은 늙으나 육신은 벗어버리고 다시 갈아입으면 될 것이고, 언제나 죽는다 산다 하는 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 그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됐고, 벌써 이거를 보고서 이거보다 저게 좀 낫겠다 해서 저 걸로 발전을 해서 바로 다른 걸로 생산이 됐고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절이나 어느 곳에 믿음을 가진 데나 또는 위대한 사람을 사람의 모습으로 해놨지 다른 걸로 해놓지 않았죠?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렵니다. 그리고 내일 그거는 이어서 하고요. 글쎄 사람도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은 사람, 보이지 않는 데에 마음도 그렇지만 보이는 데 마음도,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맡겨도, 악한 사람한테 맡겨지면 아주 고통스러울 거고 선한 사람에게 맡겨지면 좀 유할 테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서 악한 대로 돌아가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한 선한 일은 자기가 한 것만치, 자기가 하는 것대로 끼리끼리 이렇게 맞상대가 되고 모이게 되고 거론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러니 그걸 가지고 업보다, 업보다 하는 겁니다. 유전이다, 업보다, 인과응보다 이런 문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아주 가난한 어느 여인이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죽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도 그렇게 마음이 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테 요만큼도 생명에 언짢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거를 거저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것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만 죽어버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 사람이라고 합시다. 또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항상 믿고 열쇠를 맡기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조금도 깔축은 없는데 융통성이 조금 없어, 좀더 지혜가 있고 그러면 좋을 걸!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너무나 착하니까, 우주의 법망에 어디든지 통과가 안되는 게 없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전부 있기 때문에, 응!

아까 단계 단계 얘기했죠? 원자력으로부터 전자력 또는 그 무전자로부터 무전력, 이게 한데 있었는가 하면 지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탐지기나 천안통,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 단계 단계 단계, 이것이 인간에게도 다 주어져 있고 이 지구에도 주어져 있고 어떠한 물체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별성에도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천체 통신이 가능하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어디서 돌보든지 돌봐.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분들은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마라 이거야.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이거야, 응? 왜 거길 봐? 그거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만날 작은 그릇에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해! 그게 습이거든.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버려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허허허.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좀더 좋게 해서 내면 좋을 거 아니냐 이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는 이 접시의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 이거야.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어라 이거야.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금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만 용광로에 넣고 말로 하지 말아라 이거야. 왜,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어, 응! 지금 다시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될 텐데, 생산하는 거는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 '아, 그때는 그렇더니 새로이 이게 나오는구나!' 하고 또 달리 보일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거야. 물건이 다르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야. 고정되게만 보지 마라 이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을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느냐 이거야.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 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나 고질 병자들은, 고질병이라는 거는 그 습을 놓지 못한다면 고질병이 다 이거야.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고 내일은 땅에서 나는 물건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보고, 또는 하자를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했는지를 몇 마디 해드리죠. 그럼 감사합니다.

86년 6월 21일

> "모든 걸 나의 근본에 맡겨놓음으로써 전자부터의 자기 종문서를 몰락 태울 수 있다"

> "귀를 열고 눈으로 밝게 본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팔만대장경"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사전 병 예방 및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생활 속 비상따주기로 활용(풍,급체,기절,경기 등)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원장 직강<공학박사, 교수>)

6. 강 좌 일

- 2007년 6월 29일 [금] ~ 7월 1일[토][2박 3일]

7. 특전

-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1회 수강으로 완료함
- 비법 교재 및 사혈기 지급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 문의시 세부 강좌 프로그램 보내드립니다.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불자 세상보기

이 애 주
무용가 · 서울대 교수

깨달음으로 가는 '길닦음'

춤은 보고 즐기는 몸의 움직임만이 아닌 응축되었던 정신이 드러나는 하나의 의례이다. 삶의 참 의식이다.

지난 6월 9일 민주항쟁 20년을 기념하며 춤을 추었다. 그날의 춤 역시 하나의 의식을 치루는 춤판이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 역사를 맞이하는 역사에 대한 지극한 의례였다.

1987년 2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1월, 박종철 물고문 사건이 터진다. 우리 모두를 정신까지도 숨까지도 얼어붙게 만든 물고문 치사사건. 여기저기서 선 · 후배, 동지들의 각종 고문당한 이야기가 수런수런. 극악하고 무도한 그 사건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인간성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 행위들.

누가 누구를 무엇이 한 인간을 그토록 짓밟을 수 있는가. 나 역시 연습실도 안주할 곳도 마땅치 않던 그 시절. 모두 얼어붙은 정국.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그럴수록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음이었다.

어떻게 풀 것인가. 그 겨울에 인간성이란 인간의 도덕성이란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 그 과정에서 무참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들의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들만으로 충분히 채워진다. 상징적으로 모아진 사실적 이야기. 생명의 탄생, 자람, 꽃 피움, 죽음, 다시 태어남 등으로 생명의 일생으로 틀을 잡았다.

씨가 땅에 떨어져 물과 불로 발아되고 자라면서 꽃 되어 열매 맺고 일생을 마감하는 생명의 보편적 틀. 그러나 물과 불 기운이 넘칠 때 파괴되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부당한 힘들. 처절한 마감을 하고 그 죽음이 거름되어 다시 피어나는 꽃. 결국은 생명의 일생이고, 사람 일생의 이야기로 압축된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술로 승화시켜 풀어나갈 것인가.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가능할 것인가. 마침내 씨 · 물 · 불 · 꽃 등 생명의 구성요소로 압축되고 씨춤, 물춤, 불춤, 꽃춤으로 구체화되었다.

드디어 춤은 '바람맞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 춤은 연우무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서 펼쳐졌고 곧 시국춤, 한풀이 춤 등으로 기사화되면서 큰 불길로 번져나갔다. 연세대 이한열 장례식장, 인천 공장마당, 거제도 대우조선소, 태백탄광, 홍제동 성당, 전국 여러 대학 등 끝없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춤은 처절함을 넘어선 죽음과 삶 그 자체였고, 첨예한 시대정신의 표현이었다. 다름 아닌,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었다.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었다.

20년 후 그 바람맞이는 오늘날의 상생평화춤으로 되살아났다. 역사 속의 죽음이 태초의 인간의 정신으로써 현재의 정신으로 되살아났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려지며 그 영혼의 생명력은 우주정신, 본성으로 되살아났다. 한 빛, 한밝춤으로 되살아났다.

춤 한 걸음은 백 년, 천 년, 억겁 만년을 걷는 윤회의 한 걸음이고, 한 번 휘돌리는 팔 사위 너울질은 역사를 휘돌리는 한 사위이다. 그 한 걸음이 쌓여 삼진삼퇴(三進三退)가 이루어지고 너울 사위가 겹쳐지며 바람이 되고 태풍으로 몰아친다. 그 모두는 수족상응(手足相應)으로 상생하여 태평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오늘의 상생평화춤이다.

1987년 바람맞이나, 2007년 상생평화춤이나 다름 아닌 존재 근원에 대한 물음이었다.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었다. 춤은 참나를 찾아가는 길닦음이다. 춤은 깨달음에 이르는 정신수행이다.

불자의 눈

사찰 재정 '원칙' 정착되길

사찰과 돈을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 출세간적인 공간 즉, 신행(수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사찰과 세속적 개념이 앞서는 재정문제를 동시에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다. 사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어떤 형태든 활동이 있는 곳이기에 재정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사찰의 특수한 환경이 재정의 운용과 관련, 명쾌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줏돈으로 운영되는 사찰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다 보니 사찰의 재정 문제는 재가자들에게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찰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수행과 신행이라는 본래 기능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재정의 명쾌한 운용이 사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고 불자들의 시주문화가 합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찰 재정도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사찰의 재정 운용 문제는 큰절이나 작은 절이라는 외형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운용은 오해와 비리를 낳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찰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재정문제가 깨끗한 사찰은 뭐든지 발전적이라는 사실을 놓쳐선 안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가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결정이다. 이 위원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찰 재정 운영 방안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찰이 그 틀을 받아들여 '깨끗한 불교'가 되길 기대한다.

불교환경연대 '큰 그림' 환영

불교환경연대가 서산과 김포에 잇따라 지회를 창립한다. 환영할 일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그간 불교계 환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운동이 모두 성공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의 결핍이었다.

2001년 창립된 불교환경연대는 불교계의 환경 수호 의지를 결집하는 거대기구다운 결집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래서 이번 서산과 김포지역의 지회 설립은 불교환경연대의 조직 확대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회의 명칭을 '서산불교환경연대' '김포불교환경연대' 형식으로 한 것도 지회가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광역시와 도 단위의 지부와 시군구 단위의 지회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각 지역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 하는 것이 불교환경연대의 '큰 그림'이다.

또 불교환경연대는 연초에 초록봉사단을 설립해 불교환경자원봉사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혔었다. 지부 지회의 꾸준한 확대와 환경자원봉사단의 가동을 축으로 불교계의 환경운동을 견인하겠다는 의지였다. 이 같은 의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승단과 재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불자들의 '참살이'를 이끌어가는 불교환경운동에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6. 사립학교법 뿌리 내려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사학, 민주·합리적 운영 솔선수범 해야"

2005년 12월 9일 국민적 관심 속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1년 반이 지나도록 보수 정치권과 종교계의 반발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간의 사학법은 1990년 3월 거대여당이던 민자당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 평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른 20개 법안과 함께 일괄 통과시킨, 그 전보다 오히려 개악된 법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사학법은 15년간이나 싸워서 얻어낸 국민주권 되찾기의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한마디로 '부패와 전횡'이다. 교육은 돈만 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성과 공공성이 부족한 경우,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신 개인사업 하듯 친족들의 일자리나 돈벌이 정도로 생각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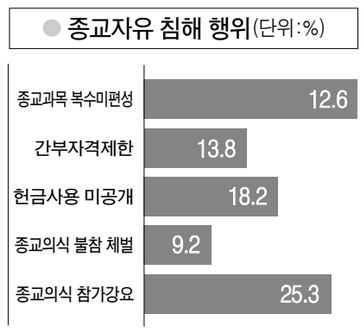
그 결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온전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뻔하다. 10여 년 전 사회문제화 되었던 서울 상문고 사태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 소용돌이 속에 죄 없는 학생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기억이 생생하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 사학법의 핵심 쟁점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 두게 되어 있는 '개방형 이사제'라고 할 수 있다. 사학재단들은 이 제도가 '사유재산권'과 '학원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공공이익'이 곧 '공공소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리적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출연한 재산은 더 이상 그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사회의 공공소유도 아닌 그 목적을 위한 공익법인의 소유일 뿐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윤리강령에서도 "사학을 위해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유물 같이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스스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익이나 특정종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설학원 또는 신학교와는 달리, 사학의 재정 운영과 수업 내용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 전제 아래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허가하여 갖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심지어 국민이 낸 세금, 즉 국가예산으로 연간 수조 원씩 지원까지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전국의 사립학교 수는 1900여 개로서 전체 학교 중 차지하는 비율은 중 · 고등학교가 각각 23.5%, 46%, 전문대와 일반대학이 각각 90%, 79%이다. 사학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학의 건강성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종교정책연구원 종교사학 학생설문 조사.1996년>

사학비리가 사회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종교계 사학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종교사학은 근본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립학교 중 종교계 학교는 전체 사학의 약 25%인 480여 개이며, 이 가운데 개신교 학교는 360여 개로 종교사학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기독교가 공공연히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사학에서 종교과목은 타과목보다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수과목"이라며 사학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부패 · 비리보다 '종교강요 내지 종교차별'이란 인권침해 사실이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게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종교교육 자유, 건학이념 훼손' 운운하면서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자유'라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우선 원칙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떼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사학법인의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교비 유용 및 횡령, 교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및 학생의 인권침해까지 그 횡포나 사리사욕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고통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사학법을 바로잡아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어 왔다.

서구의 선진국들도 학교 운영에 교사와 학부모, 동문과 지역인사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교육이 잘못되기는커녕 오히려 사립 명문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들이 많다. 부정 · 부패 · 반인권과 무관하고 설립 취지가 진정 '교육'이라면, 학교가 사적 소유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히려 앞장서서 개정 사학법을 지지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상징적인 개방마저 반대하는가. 학생 등록금과 국고 지원으로 '치부와 선교를 계속하겠으니, 국가는 돈만 내놓고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엄포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다. 정 '내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동안 국고지원을 받은 만큼 국가에 모두 반납한 후 당당하게 '자립형 특수학교'를 신청하는 게 합당하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일반사회에서조차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사립학교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라면 더욱 그러하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였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11주기 추모 대제 만등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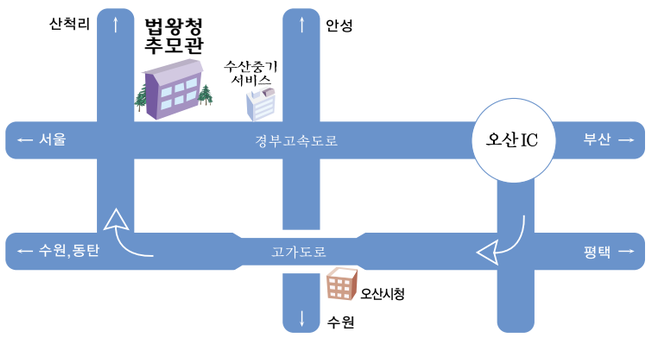
법왕장학금 수여식 및 붕새연못 제막식

귀의 삼보하옵시고!
금번 저희들은 152개국 5,300여단체에서 추대하여 초대법왕에 취임하신 우리의 대 스승이시며 법왕청 설립자이신 일붕 서경보 초대법왕 열반 11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이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주 최 : 일붕존자원적 11주기추모 대법회 봉행위원회
- ◆ 주 관 :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법왕청 총무원, 일붕법왕문도회
- ◆ 후 원 : 법왕청신문사, 노인복지신문사, 법왕청장학회, 각 사암
- ◆ 일 시 : **불기2551년(서기2007년) 6월 23일 토요일 (음. 5월 9일)**
- ◆ 시 간 : **추모법회 오전 10시~기원법회 12시부터**
- ◆ 장 소 :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5분 거리)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448번지 (재)세계불교법왕청 대웅보전
- ◆ 연락처 : 031)377-1081 / 총무원 02)3217-3217





증 명 대법주(부산 대각사)고불 경우 큰스님

고 문

IAEWP-UN-NGO찰스 메르시에카 박사
LA한국의 날 축제재단 이사장 계무림 미첼 골드 캐나다 환경운동가

원로위원 **대호스님** 원로위원 **지안스님** 원로위원 **동봉스님**
한국선불교조계종 종정 **도경스님**
대한불교아미타여래종 이사장 **현송스님**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스님**
대한불교 미륵세계용화종 종정 **월단스님**
(사)교단용화불교 교령 **천강스님**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각암스님**
중앙종회의장 **정관스님**
중앙종회부의장 **운암스님**
(사)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보혜스님**

지도위원

감사원장 **혜봉스님** 교육원장 **지학스님** 포교원장 **혜산스님** 법사위원장 **호당스님** 법사부위원장 **최두례** 사정원장 **능인스님** 사정원부원장 **법진스님**

봉행위원장

총무총정 **황정스님**

봉행부위원장

경기교구종무원장 **해천스님** 경북교구종무원장 **범아스님** 광주교구종무원장 **혜성스님** 대구교구종무원장 **혜능스님**
부산교구종무원장 **청운스님** 울산교구종무원장 **자광스님** 전남교구종무원장 **광운스님** 전북교구종무원장 **수엽스님**
충남교구종무원장 **공심스님** 충북교구종무원장 **법진스님** 전남교구종회의장 **혜선스님**

국제부장 **무심스님** 교무부장 **혜주스님** 교육부장 **정타스님** 규정부장 **혜심스님** 사회부장 **도천스님**
재무부장 **법정스님** 총무부장 **해월스님** 포교부장 **혜명스님** 호법부장 **혜명스님** 홍보부장 **해운스님**

집행위원장

담화 **이존영**(재단 이사장)

집행위원

혜범스님, 청운, 공덕문스님, 광덕스님, 금강스님, 금운스님, 남천스님, 대안스님, 대원스님, 도명스님, 도영스님, 도원스님, 도해스님, 동법스님, 만오스님, 명조스님, 무연스님, 무해스님, 문곡스님, 문원스님, 백천스님, 백혜스님, 법공스님, 법랑스님, 법룡스님, 법륜행스님, 법수스님, 법천스님, 보각스님, 보광원스님, 보련화스님, 보리심스님, 보명스님, 보타스님, 보타원스님, 보타행스님, 보현법사, 보현스님, 상경스님, 서화스님, 석마정스님, 석정스님, 선관스님, 성학스님, 세정스님, 송미스님, 송암스님, 수타원스님, 시명스님, 시제스님, 연화스님, 연화심스님, 연화행스님, 운선스님, 운암스님, 원명스님, 원봉스님, 원오스님, 월산스님, 일광스님, 정광스님, 정다문스님, 정도화스님, 정수스님, 정인스님, 정행스님, 종암스님, 지선스님, 지일법사, 진공스님, 진광스님, 진여스님, 진원스님, 천영숙스님, 청명스님 청명화스님, 청보스님, 청안스님, 청운행스님, 태원스님, 평상스님, 해론스님, 향덕스님, 허대원심스님, 현블스님, 현성스님, 현우스님, 혜강스님, 혜공스님, 혜광스님 혜득스님, 혜법스님, 혜성스님, 혜원스님, 혜원스님, 혜인스님, 혜인스님, 혜일스님, 혜일스님, 호암스님, 홍신스님, 효천스님, 법성, 청산, 무성스님, 초산스님, 법상스님, 무상스님 원각스님, 원성스님, 혜성스님, 붕안법사, 청곡스님, 혜주스님, 광덕스님, 무량스님, 보덕스님, 무원스님, 청공스님, 도원스님, 대성스님, 혜광스님, 정암스님, 청암스님, 공덕스님, 청사스님, 법성스님, 무의스님

※ 일붕 큰스님 원적 11주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에게는 비누세트와 염주를 드립니다. (점심무료제공)